Jeonbuk Institute

기본연구

2023-10

전북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 기초자료 집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Study on Collecting Basic Data and Revitalizing on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Related to Later Baekje in Jeollabuk-do

장충희 이석형

jthink 전북연구원

설립목적

전라북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과 여성정책 등에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 지역여성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대안의 모색
- 정부, 전라북도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의 각종 용역 수탁
- 연구 관련도서 및 간행물 출간
- 국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정보 교류·협력

연구진 소개

장충희

공주대학교 문학 박사(고대사)
백제문화기획 대표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석형

원광대학교 한국사학 석사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Jeonbuk Institute

기본연구

2023-10

전북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 기초자료 집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Study on Collecting Basic Data and Revitalizing on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Related to Later Baekje in Jeollabuk-do

장충희 이석형

jthink 전북연구원

연구진 및 연구세부분담

연 구 책 임	장충희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 6장
공 동 연 구	이석형	전문연구원	제2장 용어정리, 3장 자료집성, 4장 수요층 분석

자 문 위 원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실장
	조명일	국립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 초빙교수
	이문형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정재윤	국립 공주대 사학과 교수
	김병남	국립 전북대 사학과 교수
	권오영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김승대	문화유산과 학예연구관
	이민석	문화유산과 학예연구사

연구관리 코드 : 23GI0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 약
SUMMARY

1.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대중과의 공감을 기반으로 한 활용으로의 전환이 중심이 되는 문화재 정책동향에 발맞춘 전북지역 역사문화자원의 활성화 방안 모색

○ 지역 정체성 정립과 연계된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가치와 향후 미래 먹거리(경제적 가치 창출) 방안 모색

○ 전북 지정문화재 1,000건 시대의 개막과 궤를 함께하는 후속 활성화 방안 모색

○ 역사문화권 정비법 내 '후백제역사문화권' 설정에 따른 전북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현황파악과 향후 활용방안의 모색

○ 본 연구는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성과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마련과 함께 이러한 정책이 대중들을 위한 활용방안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및 방법

○ 전라북도의 후백제와 관련된 유적 및 국내에서 진행된 후백제 관련 연구성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 시간적 범위는 후삼국시대이며 수요층 분석과 활용방안은 향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염두에 두고 진행

○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 정보조사, 사례조사 등을 통한 기초자료 집성과 함께 수효층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툴을 활용한 연구방법을 활용. 전문가 자문 및 수요층 분석을 위하여 문화재관련 정부출연연구원, 전라북도 문화재 관련 부서, 도내외 대학교수에 대한 심층 전문가 자문을 진행

2. 결론 및 정책제언

▌ 역사문화자원 콘텐츠 재생산을 위한 인력확보

○ 연구성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후백제 관련 연구인력의 부족은 타 역사문화권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

- 향후 건립될 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후백제관련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센터를 중심으로 후백제 관련 연구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후백제 대중화 콘텐츠 강화를 통한 인지도 제고

○ '견훤', '전주' 등의 1차적인 키워드 중심, '고려 태조', '후삼국'시대와 같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중심주제보다는 주변 소재로 인식되는 후백제의 한계점 도출

- '후백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
-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정체성을 주제로 하는 대형 축제의 기획이 시급
- 다양한 창작물에 대한 지원 및 홍보를 통하여 '후삼국 속의 후백제', '고려 태조 왕건과 견훤'이라는 종속적 관계를 벗어날 필요가 있음

▌ 타 역사문화권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확보

○ 관련 콘텐츠 부족 → 후백제역사문화권과 역사문화자원의 가장 큰 약점

- 후백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특징인 '백제의 계승', '활발한 대외관계' 등과 연계·확장
- '후'백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전북지역(익산)이 가지고 있는 백제와의 연계 그리고 백제의 대외관계와 해상교류의 연장선 상에서 후백제-오월의 교류 등을 통한 콘텐츠의 확장
- 『三國史記』卷50, 「列傳」10 甄萱條의 '의자왕(義慈王)의 묵은 분함을 씻지 않겠는가?(以雪義慈宿憤乎)'는 후백제 건국당시 견훤의 국정과제이자 비전 → 서기 660년 백제 멸망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도약의 발판

차 례

CONTENTS

요 약 ····· i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 6

제2장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 현황과 활용실태

1.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가치와 활용배경 ····· 19
2. 전북의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 현황 및 분석 ····· 25
3.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 활용실태 ····· 33

제3장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 연구성과 검토

1. 학술지 논문 연구성과 기초자료 ····· 59
2. 학위논문 연구성과 기초자료 ····· 67
3. 저서 연구성과 기초자료 ····· 67
4. 관련 연구성과 분석 및 시사점 ····· 71

제4장 후백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 및 분석

1. 전북 후백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 ····· 77
2. 사회적 인식 조사 시사점 ····· 85

제5장 결론 및 활성화 방안 정책 제언

1. 결론 및 연구 쟁점 ····· 89
2. 전북 후백제 역사문화자원 활성화 방향성 ····· 90
3. 비전체계 및 전략별 과제 ····· 92
4. 향후 연구계획 ····· 95

참고문헌 ····· 96

영문요약 (Summary) ····· 97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최근 정부의 문화재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대중과의 공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문화재청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기본계획의 성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 국민공감: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확대로 문화재에 대한 접근 기회 확대 /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재 교육 및 정확한 정보 제공 / 지역 소재 문화재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 마련
· 보존패러다임 변화:	문화재 유형에 맞춘 보존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보존체계 구축 /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문화재 보존 효율화 / 합리적 규제와 지원을 통해 문화재보존과 국민 재산권 보호 간 조화
· 문화재=국가브랜드: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 및 세계유산의 보존·활용 기반 마련 / 국제 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교류 활성화 / 복원·정비를 통한 고도유적 및 궁궐의 국가 브랜드화
· 문화재 기반 강화:	24시간 상시감시체계 운용으로 문화재 방재 역량 강화, 문화재 원형자료 확보 및 민간 개방 등 문화재 아카이브 활성화,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문화유산 정책 추진

2017~2021년 진행된 기본계획에서는 '문화재 보존·전승 체계의 유연성 필요,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방식의 한계, 국제사회에서 문화유산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대응 필요, 변화하는 관리행정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역량 필요 ⇨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미래 문화재 정책과 행정서비스 혁신 필요'라는 화두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이라는 대중과의 공감을 중심으로 문화재 활용정책에 주안점을 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새롭게 수립된 2022~2026년 기본계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2022~2026년까지 수립된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이다.

·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
· 목표
  : 문화재 정책과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대전환
  : 지속가능한 보존과 문화유산 활용의 조화·상생
  :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도약
· 추진전략
  :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전승
  : 국민행복시대의 문화유산 활용
  : 세계와 함께 누리는 우리 문화유산
  : 미래를 여는 문화재스마트 행정
· 기본계획 방향성 및 시사점
  : 2012년부터 핵심목표로 상정된 '활용을 통한 국민공감' 개념의 확대 및 강화
  :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미래먹거리' 기반마련 및 가치공감 추구
  : 세계로 뻗어나가는 K-Culture 중심의 문화재 정책 지향
  : 4차 산업혁명의 고도화 및 코로나19 등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화유산관리의 디지털 관리(보존 및 활용)

이와 같이 정부의 문화재 관련 정책들은 과거 보존과 관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대중친화적인 정책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화재를 활용한 '미래먹거리(경제적 가치창출)'산업 육성 등 적극적인 활용 패러다임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재의 활용은 지역학 측면에서 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연계되어 인식되고 있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눈앞에 둔 민선 8기 전라북도의 도정운영 방향 속에서 문화재정책은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을 중심으로 기존 문화체육관광 산업 범위의 확대 및 전북만의 특별한 콘텐츠 개발 및 발굴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연계하여 문화재 정책 측면에서 2022년은 전북 지정문화재 1,000건 지정 등의 이슈 등 역사를 기반으로 한 문화체육관광 거점 마련의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22년 10월 기준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1,012건 지정
·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7번째로 많은 숫자
· 국가지정 230, 국가등록 91, 도지정 684, 도등록 7
· 도민 10,000명당 지정문화재 6개(경북 9개, 전남 및 경남 각각 7개) /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비중

문화재의 지정은 학계의 연구성과 축적 및 가치도출과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도민들의 가치공감이 모두 충족되어야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전북 지정문화재 1,000건 지정은 전북지역 문화기반의 기념비적인 내·외연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북특별

자치도'출범을 앞둔 전라북도에 있어 전북의 역사와 문화재는 '전북만의 특별함'을 상징할 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는 지방문화재 관련 법률의 제정과 이에 따른 전북지역의 기회창출 여건 마련이다. 2022.12. 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안에 '후백제역사문화권 권역'의 설정은 전북지역 문화재정책의 활성화에 초석을 다진 이슈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역사문화권정비법의 맹점인 문화재에 대한 '면단위 관리'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예산 책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거 지정문화재 중심으로 전개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체계가 면단위로 확장될 수 있는 전략적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기존에 발굴되지 않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콘텐츠화를 통한 활용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면단위 관리 대념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연계와 개발을 통해 새로운 문화재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활성화된 지방의 문화재 관련 정책 및 활용방안에 유리한 여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북지역의 후백제역사문화권 권역설정은 '백제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설정에 이어 전북 문화재 정책의 청신호라고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후백제역사문화권의 맹점 역시 확인된다.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역사문화권 권역 중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가 연계된 역사문화권 권역인 것이다. 이에 전북에서는 전주를 중심으로 개정안이 발의(김성주 의원 대표발의)됨과 함께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 방향 국회토론회(23.3.3.)', '후백제 특별법 통과와 미래전략 시민토론회(전주시, 23.3.17.)', '후백제 학술 대토론회(전북일보/후백제학회, 23.3.24.)', '후백제 왕도 전주 고도 지정 추진(전주시, 내년 6월 신청 예정)' 등 전북을 중심으로 하는 후백제역사문화권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활용중심의 문화재 정책 전개와 전북지역의 후백제역사문화권 권역 설정은 전북 문화재 정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연계하여 주목되는 부분은 대중들의 문화재 방문 형태의 변화이다. 코로나-19의 유행 및 이어진 엔데믹의 전개는 대중들의 문화재 방문 형태를 '대규모 관광에서 소규모 여행으로, 인기문화재에서 생소한 문화재로'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여행 선호도 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에서 소규모 여행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과 함께 지역 역사문화자원 방문객 패턴이 과거 수학여행 등

단체여행의 형태에서 가족단위 방문객의 증가되고 있다는 연구결과 역시 주목된다.(장충희, 2020) 특히 낯설고 새로운 관광지에 대한 대중들의 긍정적인 인식의 제고(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는 새롭게 전개될 후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에 있어 경쟁력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목적

이러한 연구배경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성과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마련과 함께 이러한 정책이 대중들을 위한 활용방안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기존의 조사 및 연구 등 다양한 학술적 활동을 통해 도출된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는 대부분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폐쇄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정책반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문화재의 가치가 전북도민의 삶과 직관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인식의 부재는 문화재 활용 정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학계의 연구성과가 도민들을 위한 정책 반영과 문화산업 경제적 가치창출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문-정책-활용의 간극을 줄이고 역사적 가치와 현실적 반영이 조화될 수 있는 연계방안 구축에 지향점을 두고 있다.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가. 연구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라북도의 후백제와 관련된 유적 및 국내에서 진행된 후백제 관련 연구성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겠다. 시간적 범위는 후삼국시대이며 수요층 분석과 활용방안은 향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다.

나. 주요 연구 내용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역사문화

자원'의 개념과 정의 관련 용어정리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다. 문화재(文化財, Cultural Properties), 문화유산(文化遺産, Cultural Heritage), 역사문화자원(歷史文化資源, Historical Cultural Resources) 등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문화자원 관련 용어정리를 통해 문화재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문화산업과의 연계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역사문화자원 관점에서 전북의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북의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를 기반으로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기초자료 집성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후백제 관련' 개념과 그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중심으로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범주를 설정하고 진행하겠다.

· 문화재의 지정학적 위치가 후백제와 관련된 문화재
· 문화재와 관련된 역사 및 주체의 행위가 후백제와 관련된 문화재
· 전북 내에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함

역사문화자원은 '자원'이라는 말에 내포된 것처럼 미래먹거리(경제적 기회창출)를 생산할 수 있는 성격, 즉 원자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은 향후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이 가능한 대상을 원칙으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겠다.

역사적 가치가 동반되지 않은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은 역사에 대한 왜곡과 혼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분류 및 연구성과 검토를 통한 역사적 가치 도출'을 두 번째 주제로 진행하고자 한다. 문헌연구성과 집성,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 목록화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이 가지는 보편적인 역사적 가치와 전북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이 가지는 특수성 도출하겠다.

다음으로는 효과적인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제시를 위하여 스토리텔링 콘텐츠 모델개발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SNS 분석, 관련기관 통계 및 정책자료 등을 통한 도민 및 대중의 전북 후백제에 대한 인식 분석 등을 통해 전북 후백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수요층 분석을 진행하겠다.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은 그 가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의 공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하기 때문에 전북 후백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식과 이를 기반으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현안을 도출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스토리텔링 모델링을 통한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마련하도록 하겠다. 역사적인 가치와 수요층의 공감요소를 중심으로 '기-승-전-결의 플롯'을 가지는 스토리텔링 모델 개발을 통하여 전북 후백제 역사문화자원이 가지는 활용방안의 경쟁력을 제고하

는 것이 목적이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살펴본 보편적 가치의 도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과 함께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향후 후백제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중장기적으로 역사적 가치와 대중과의 공감(스토리텔링)에 기반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다. 연구 관련 용어 정리

역사문화자원 활용에 있어 용어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정부의 문화재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관련 용례가 변화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원 관련 용어정리는 향후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당위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다음은 역사문화자원과 관련된 용어의 개념 및 정의이다.

1) 문화재(文化財, Cultural Properties)

문화재의 개념은 역사문화자원 활용뿐만 아니라 조사와 연구, 보존과 정비 등에 있어 사용되는 용어 중 가장 상위에 위치한 개념이다. 이러한 문화재의 법제적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

문화재의 분류는 크게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로 분류되며 이에 유무형의 실체를 가진 국가차원에서의 복원과 복구, 관리와 보호 및 전시의 대상을 의미하고 있다. 문화재의 개념이 사용된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1950년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제정과정에서 독일어의 Kulturguter(Cultural properties)를 한자로 옮긴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가 확인되고 있다.[2)]

1)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2) 김영규, 2009, 「한국과 일본의 문화재보호정책 비교연구」, 『한국지역혁신논집』4-2,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

2) 문화유산(文化遺産, Cultural Heritage)

문화유산은 관리의 주체가 되고 있는 정부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사용하기 시작된 명칭이다. 특히 문화재에 대한 가치재(價値財)로의 인식[3] 즉, '적정수준까지 소비를 해야 좋지만 개인의 소비수준이 적정수준에 미달하게 되는 재화'로서의 인식이 투영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유산은 정부차원에서 시장에 적극개입하여 가치재인 문화재를 대중들에게 공급한다는 의미[4]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는 국가에 의해 복원과 복구, 관리와 보호 및 전시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의 개념에서 확장되어 유무형의 재화에서 인류의 문화향유에서 비롯된 문화재 외연을 둘러싼 '의미'를 중심으로 확장된 인식[5]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문화유산헌장』이다.[6]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유산은 유무형의 문화재 개념에서 나아가 이에 대한 보존과 보호를 핵심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을 통한 가치제고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7]

최근(2022년 4월 11일) 발표된 문화재청의 명칭에 대한 공식입장은 문화유산의 이러한 개념을 더욱더 뒷받침해주고 있다. 문화재청은 공식적으로 사용되던 '문화재'용어에서 '문화유산'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결정을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통해 개진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재화 개념의 문화재(文化財) 명칭은 역사, 정신을 포함한 유산(遺産)으로 바꾼다.
- 지정·등록명도 '문화재'에서 '유산'으로 변경한다.
- 국보·보물 등 국가문화재 지정 기준도 오래된 것, 귀한 것, 유일한 것에서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등으로 초점을 바꾼다.

이러한 문화재의 문화유산으로서의 명칭변경은 다음과 같은 취지를 가진다. 첫 번째는 문화유산이라는 '지역 공동체의 원천자산이자 미래유산까지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의 용어를 채택해 계승과 전승 의미를 넓히는 쪽으로 정책기능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

전연구소, 83쪽.

3)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7,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4) 이진우, 2018, 『문화유산 활용의 이론과 활성화 체계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쪽.

5) 문화전략연구소, 2006,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연구』, 문화재청, 30쪽.

6) 문화관광과, 1997.12.8., 『문화유산헌장』.

7) 문화관광과, 1997.12.8., 『문화유산헌장』.

지'이다. 과거 보전과 보호 중점의 문화재 개념에서 계승과 전승이라는 현재적 가치부여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는 '풍부한 역사와 정신적 가치까지 포함'이다. 이는 문화재의 배경이 되는 사회 구조나 역사적 당위성 등의 무형의 가치 역시 문화유산이라는 명칭 하에 포함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세계유산과 상응하는 개념으로 각 유산을 포괄하는 통칭개념인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헌법에 규정된 문화국가 원리 실현의 원칙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에 주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3) 역사문화자원(歷史文化資源, Historical Cultural Resources)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문화자원의 개념을 살펴보면 문화자원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유무형의 민족자산으로서 아직 문화적 가치가 드러나거나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인 문화유산 내지는 문화재를 의미하며 문화재의 가장 큰 범주로서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포함한 넓은 범주'[8]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는 문화자원에 대하여 '도시와 그 가치 기반의 원자재이고 석탄과 철강 또는 금을 대신할 수 있는 자산'으로 설명하고 있다.[9]

이러한 측면에서 역사문화자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개념을 정의내릴 수 있다. 먼저 역사문화자원은 잠재적 가치를 가진 문화재까지 포함하는 큰 범주이다. 이를 통해 그 대상이 가치발굴 전후의 문화재까지 확장될 수 있다. 또한 '자원'이라는 단어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이 보전과 보호에서 나아가 새로운 경제력(기회가치)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창출의 원자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역사문화자원의 개념은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과거로부터 전해져온 문화유산을 통한 현재적 가치창출에 그 의미가 맞닿아있는 것이다.

역사문화자원의 개념은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역사적 가치 혹은 다양한 학술적 검토를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잠재적인 역사적 가치에서 나아가 현재를 살아가는 대중들의 현재적 가치와 연계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살펴본

8) 문화전략연구소, 2006, 앞의 글, 30쪽.

9) Charles Landry(임상오 역), 1948, 『The creative city :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해남.

바와 같이 역사문화자원의 정의는 문화재와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함께 문화산업의 저변에서 새로운 가치개발을 통해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 즉, 역사적 가치와 대중성을 모두 확보한 문화자원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문화재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기존의 보호중심적인 태도에서 나아가 그 가치를 현재에 전달하기 위한 활용적 측면으로 그 방향성이 전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의 문화재 정책이 과거로부터 가치를 현재에 전달하는 과정과 이를 통한 제3의 재화적 가치를 이끌어내는 과정 즉, 보존과 활용이라는 이원적 구조에서 이를 영위하는 대중들의 중요성과 관련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대중들에게 문화재가 가지는 가치를 인식시키고 나아가 이에 대한 보전 및 보호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개념은 2000년대 후반부터 전개되어온 개념이다.[10] 지금까지 보전과 보호에 맞추어졌던 문화재에 대한 화두가 활용을 통한 가치의 제고 그리고 이를 통한 보존을 지향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으로서 인식의 변화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4) 스토리텔링에 대한 개념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스토리텔링은 비교적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다. 스토리텔링은 본디 문학작품의 전개과정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여 지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보전달 방법이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야기하다, 정보를 전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진 내러티브(Narrative)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특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기본전제로 한 스토리텔링은 특징 상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정의 역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경영 철학자의 한 사람인 스티브 데닝은 그의 저서를 통해 스토리텔링을 단순한 정보의 전달로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받아들이는 대상이 정보를 '자기화'할 수 있도록 감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11] 국내의 다양한 연구성과들은 이러한 '공감'이라는 스토리텔링의 기본전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정의한 내용이다.[12]

10)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2010, 「2010년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문화재 생생(生生) 사업 지원계획」, 문화재청.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2011, 『2011 문화재 생생사업 담당자 워크숍(2차) 자료집』. ; 정재윤, 2017,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와 활용 방안」, 『고구려발해연구』59, 고구려발해학회, 67쪽.

11) 스티브 데닝(안진환 역), 2005, 『스토리텔링으로 성공하라』, 을유문화사, 15~16쪽.

연구자	내 용
이인화(2003)	사건에 대한 진술이 지배적인 담화양식
김의숙·이창식(2005)	협의 : 재미있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 광의 : 문학적 상상력, 예술적 심미안. 공학적 기술
한국관광공사(2006)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관광지와 관광객이 정보와 체험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공동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관광객의 체험과 추억을 관리를 통해 관광객, 관광지, 지역주민이 공동의 감성체계를 만들어가는 것
김경인(2006)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하나의 근본적인 방식이며, 자신이 인식한 세계에 대한 감상적인 발화장치
최혜실(2006)	'story', 'tell', 'ing'가 결합한 것
박기수(2007)	매체환경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고 있고, 스토리의 중심에서 탈피하여 말하기와 상호작용성을 중심으로 한 향유의 중심
전명숙(2007)	관광스토리나 관광지 관련 이야기의 소재를 발굴하거나 의미를 찾아 관광지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작업
최은호·임은미(2008)	스토리 발굴, 체험, 공유의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유가치를 만드는 과정

장충희, 2022, 『공주와 부여의 백제역사문화자원 가치제고를 통한 활용방안 연구』 재인용

또한 사회과학적 내러티브의 관점에서 의사소통의 일환인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제시한 견해도 주목된다.[13] 사회과학적 내러티브와 의사소통의 핵심개념은 기존의 '화자' 중심의 정보전달에서 '청자' 중심의 정보전달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그 목적 역시 '내용의 전달'보다는 '내용의 이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보전달 과정에서 '정보의 양' 보다는 '극적인 효과'를 통하여 상황몰입을 유도하고 능동적인 청자의 공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특징은 정보전달의 기저에 감성을 자극하여 청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수단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보전달에 있어 '상호작용'의 개념이다. 특히 '화자와 청자 간 감정의 교류'로 정의내려지고 있는

12) 장충희, 2012, 앞의 글, 23~26쪽.

13) 朴素禾, 2012, 『스토리텔링 基盤 教授設計 原理 및 模型 探索』,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17쪽.

스토리텔링의 개념[14]과 같이 상호작용은 공감을 중심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정보전달이 정보의 양과 방법에 치중되어 있다면 스토리텔링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감을 통한 정보의 자기화가 우선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보의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에 기반한 체험이 중요하다.[15]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역사문화자원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려볼 수 있다. 먼저 스토리텔링은 정보전달의 수단 즉, 역사문화자원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수단이다. 즉, 스토리텔링의 1차적인 목적은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전달함에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쌍방향적 상호작용'을 통해 대중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하는 것이다. 기존의 역사문화자원의 가치전달 체계가 일방향적이며 전문적인 내용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대중들의 적극적인 공감을 위해서는 능동적인 체험이 기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물리적인 체험을 넘어서 정보(역사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에 기반한 체험에 다가설 수 있는 이른바 능동적 참여에 기반한 공감대 형성의 단계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전달', '상호작용', '능동적 참여' 등의 정의를 통해 역사문화자원 활용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의 개념은 '일방향적 정보전달'에서 '자기화'된 정보전달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역사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동기화로 해석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역사문화자원 활용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가장 차이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16]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대중들의 가치동기화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특히 '활용을 통한 보존'이라는 키워드를 기치로 내세운 다양한 정책의 전개는 이러한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17]

14) 최혜실, 2006,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삼성경제연구소, 16~18쪽. ; 정재윤, 2012, 앞의 글, 354쪽. ; 구종상, 2014, 「우리 시대의 담론,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레시피』, 푸른사상, 22~25쪽.

15) 최혜실, 앞의 책, 111~116쪽.

16) 장충희, 2018.3,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 연구 –공주 공산성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48, 인문콘텐츠학회, 277~278쪽.

17)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2010, 「2010년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문화재 생생(生生) 사업 지원계획」.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2011, 『2011 문화재 생생사업 담당자 워크숍(2차) 자료집』.

5) 역사문화자원 활용에 있어 스토리텔링 요소와 체계

살펴본 바와 같이 스토리텔링은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전달 방법이다. 그렇다면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동기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스토리텔링의 요소와 체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역사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대표적인 스토리텔링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8]

감정이입	경험	관점	극화	긴장감
반전	발견	비유	사건	비유 (메시지 콘셉 압축)
상상	시간성	인물	플롯	호기심

이들 가운데 다양한 스토리텔링 연구성과를 통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소를 추출하면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 메시지, 갈등, 등장인물, 플롯을 확인할 수 있다.[19]

먼저, 메시지는 이는 스토리텔링 구성요소 중 첫 번째로 거론되는 개념이며 스토리텔링을 통해 대상에게 전달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역사문화자원 활용에 있어 스토리텔링의 메시지는 역사문화자원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로 대치될 수 있다. 두 번째 요소인 갈등은 스토리텔링의 핵심요소로 이야기되고 있다. 스토리텔링에서 말하는 갈등은 '관계에서 오는 부정적 감정'을 넘어서 청자가 자신의 체험 속에서 메시지를 동기화할 수 있는 기폭제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갈등'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된 것은 향후 이야기할 플롯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가치의 동기화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역사문화자원 활용에 있어 '갈등'요소는 '공감적 요소'로 대치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 앞서 제기한 갈등을 투영할 수 있는 제3의 화자이자 동기화의 대상이 되는 요소이다. 역사문화자원 활용에 있어 등장인물은 가치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인물 또는 유적이 될 수 있으며, 이 등장인물은 청자와 함께 갈등요소를 해결하고 공감하는 주체가 된다. 네 번째 플롯은 메시지를 중심으로 등장인물과 청자가 갈등을 해소

18) 朴素禾, 2012, 앞의 책, 30~31쪽.

19) 이희복, 신명희, 2011, 「광고의 스토리텔링 구성요소와 유형 연구」, 『OOH광고학연구』8-2, 한국OOH광고학회, 88~92쪽.

시켜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A=B이다’ 식의 일방향적 정보전달이 아닌 공감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함께 풀어나감으로서 역사적인 가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외에도 정보전달의 보조수단인 화자(해설사 혹은 정보전달 플랫폼) 및 스토리텔링의 대상이며 공감의 주체인 대상 등이 역사문화자원 활용에 있어 스토리텔링의 주요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표는 스토리텔링의 주요 구성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구성요소	내 용
메시지	스토리텔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갈등	청자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올 수 있는 핵심기재
등장인물	갈등을 해소하며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중심 캐릭터
플롯	발단-전개-절정-하강-대단원
화자	정보전달을 보조하거나 청자의 몰입을 유도
대상	스토리텔링의 대상이며 ‘쌍방향적 상호작용’을 위해 이해해야 하는 대상

장충희, 2022, 『공주와 부여의 백제역사문화자원 가치제고를 통한 활용방안 연구』 재인용

라. 연구의 흐름

연구의 배경	
• 전북이 확보하고 있는 후백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개념과 정의	문헌/정보조사 통계조사 전문가 자문
•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개념, 특징, 분류 • 활용에 근간한 역사문화자원 개념 마련	

⇩

전북 후백제의 역사문화자원 목록화 작업	문헌/정보조사 통계조사 전문가 자문
• 전북의 지정 및 비지정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 목록화 • 보편적 역사적 가치와 전북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특수성 도출	

⇩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문헌/정보조사 통계조사 전문가 자문 관계자 협의
• 전북 후백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수요층 분석 • 스토리텔링 모델링을 통한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마련	

⇩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 활용 사례와 전북의 활용방안 제언	전문가 자문 관계자 협의
• 국내외의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 활용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역사적 가치와 스토리텔링 모델에 기반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제언	

⇩

결론 및 시사점 도출	전문가 자문 관계자 협의
• 연구종합 • 결론 및 시사점 도출	

제 2 장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 현황과 활용실태

1.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가치와 활용배경
2. 전북의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 현황 및 분석
3.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 활용실태

제 2 장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 현황과 활용실태

1.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가치와 활용배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후백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려지고 있다.

· 후백제는 후삼국 시대에 견훤이 세운 나라이다. 견훤이 892년에 무진주에서 자립하였다가 900년에 완산주로 도읍을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여 후삼국의 주도권을 다투었던 나라이다. 견훤이 신라 왕경에 쳐들어가 경애왕을 시해하고 경순왕을 옹립하였으며, 공산동수에서 고려 태조에게 대승을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후백제는 고창전투와 운주성전투에서 패하면서 고려에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겼다. 견훤은 아들 신검에게 쫓겨났다가 고려로 귀부하였고, 신검도 일리천전투에서 고려에 항복하였다. 후백제는 2대 45년간 존속하다가 936년에 멸망하였다.[20]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의 기저에는 그 대상이 되는 문화재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진정성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통사적인 측면에서 후백제가 가지는 역사적 가치와 함께 법령 등 정책기반의 후백제 역사문화자원의 배경을 살핌으로서 후백제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진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가. 후백제의 역사적 가치

견훤이 거병(擧兵)한 892년부터 936년까지 약 반세기에 걸쳐 후백제는 한반도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구축한 국가였다. 후백제를 비롯한 후삼국 시대는 고대 사회의 종말을 고하고 중세 사회로 진입하는 경계에 있었다. 신라 말 폐쇄적 신분제도인 골품제가 무너지고 사회 혼란이 가속화되자 각계각층에서 호족(豪族)이 성장하게 된다. 견훤 역시 한반도 서남부를 중심으로 호족으로 성장하고 백제를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후백제를 건국하게 되었다.

후백제 관련 기존의 연구들은 견훤의 배경을 파악하려는 문헌사, 후백제의 영역을 파

20) http://www.encykoreal.com/(검색일: 2023.10.01)

악하려는 고고학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즉 견훤이 군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비롯하여 후백제의 영토를 통해 문화성과 역사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었던 것이다.

후백제는 신라가 통치능력을 상실한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서 성장하였다. 후백제 건국은 궁예에 의한 후고구려 재건을 촉발시키며 200여 년 전의 삼국시대를 재현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라를 사이에 두고 후백제와 궁예의 고려는 격돌하였다.[21] 신라 말 문장가 최치원 등 6두품 출신들은 당으로 유학을 떠나 개방적인 사회를 경험하며 신라에 변화를 꾀하였으나 실패하게 되었다. 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은 속세를 떠나기도 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들에게 귀부하는 이들로 나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롭게 성장한 세력을 호족이라 칭했다. 이들은 자신을 성주(城主) 등이라 칭하며 군사, 조세제도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신라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견훤 역시 그 중 한명이었다. 견훤은 중앙군 출신으로 서남해지역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군사권, 조세권을 갖게 되면서 892년 거병하여 900년 후백제를 건국하게 되었다.

후백제는 군사 활동을 통해 전라도와 충청도 남부 권역을 통치범위로 확대하게 되었고 고려와 전쟁을 수행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폐쇄적인 신분제를 철폐하고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인재를 등용하였다. '신라 말기 3최' 중 한 사람인 최승우(崔承祐)를 등용하고 고려의 과거제도 중 하나인 승과제도를 시행하며 고대 신분제 사회에서 중세 귀족사회로 전환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국가 운영 기간은 반세기에 불과하지만 산성과 채석장, 고분군을 비롯해 100여 곳의 유적과 유물이 전해지고 있다.[22] 이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후백제의 지식체계가 형성되어 후백제의 독창적인 문화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후백제는 고대 신분제 사회에서 중세 귀족사회로의 과도기에 등장한 국가이다. 새로운 변화 속에서 사회·문화적인 지식체계를 수용하고 변용(變容)함으로써 중세 귀족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촉발한 국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정신과 유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진다.

21) 이도학, 2001, 「후백제의 가야고지 진출에 관한 검토」, 『백산학보』58, 백산학회.

22) 김윤덕, 이용호 국회의원, 2023,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 방향 국회토론회 자료집』, 68쪽, 재인용.

나. 후백제 활용을 위한 역사문화자원적 배경

대중과 맞닿아있는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에 있어 그 추진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정책에 기반한 다양한 법령과 이에 따른 사업 계획일 것이다. 이에 본 항에서는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 활성화의 기저가 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이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23)]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 활성화에 있어 가장 주목되는 법령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이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은 기존의 문화재들에 대한 보존 위주의 점(點)단위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연계와 활용 등의 확장적인 요소를 고려한 면(面)단위 '역사문화권' 개념을 도입한 법령이다. 이 법령에 의하면 개별적인 문화재뿐만 아니라 역사문화환경을 통합적·거시적으로 보존·관리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등의 역사문화권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 · 조사하고 발굴 · 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목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역사적 가치의 조명과 함께 활용을 통한 가치의 확산 및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경제적 가치창출에 방향성을 두고 있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전체적인 추진방향을 통한 주요 내용 및 연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초 발의된 2021년 역사문화권 정비법에서는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 역사문화권'이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 지원 시책 등이 논의되었다.

23) 문화재청, 2020,「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업무 개요 발췌.

역사문화권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를 위한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등도 논의되고 있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연혁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역사문화권 설정에 대한 내용이다. 충청북도는 최초 역사문화권에서 제외된 '중원역사문화권의 설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정책토론회,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등)을 통해 2022년 개정된 역사문화권정비법에는 기존의 6개권역의 역사문화권에 중원역사문화권, 예맥역사문화권이 추가되었으며, 이와 별개로 전북에서는 2021년 후백제역사문화권 설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시작으로 2022년 김성주 의원이 후백제역사문화권을 포함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2023년 일부개정안을 통해 후백제역사문화권을 포함한 9개의 역사문화권이 설정되었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연혁 중 전북의 이슈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역사문화권정비법이 공포되었으나 후백제역사문화권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음
· 2022년 김성주 의원이 후백제역사문화권을 포함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 기초조사와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시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과 정비구역의 지정 요청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를 경유하여 중앙의 주무기관인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그 체제를 갖춤
·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발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야역사문화권 지정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 2020년 8월 전북학연구센터에서 '역사문화권 특별법에 전북의 마한 권역을 포함하자!'라는 주제로 이슈 브리핑 작성
· 전라북도는 백제 · 가야문화권에 포함되지만, 마한문화권은 영산강유역 중심의 전남만 포함되었음을 지적
· 전라북도 지역의 마한사 연구 및 발굴, 복원 등이 사멸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함

---

2) 국토교통부 국토종합계획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국토종합계획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내용이다.

구분		내용
제1차 (1972년~1981년)		서울-경주-부산-제주, 서울-설악산, 서울-한려해상, 서울-부여 등 서울 기점 4개 선형 관광 루트와 경주, 부여 2개 고도 면형 관광자원 개발
제2차 (1982년~1991년)		경주고도문화권, 중서부고도문화권, 제주문화권, 한강유역 선사문화권, 중원문화권, 가야문화권 문화재에 대한 보전
제3차 (1992년~2001년)		백제문화권, 유교문화권, 내포문화권,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지리산통합문화권 관광자원 개발
제4차 (2000년~2020년)		경북북부유교문화권, 지리산권,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가야문화권,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중원문화권, 기타(월악·소백산, 덕유산 주변) 등 광역관광권 등에 대한 개발개발
제5차 (2020년~2040년)	특별시와 광역시	울산광역시만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석각의 관광자원화 포함
	충청북도	충청유교문화권, 중원문화권 역사문화 전시관 확대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유교문화권, 내포문화권 활성화
	전라북도	벽골제 농경문화체험관광지, 가야역사문화자원 개발, 전라천년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전라남도	마한문화권, 관광자원간 융·복합화, 근대역사문화지구,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
	경상북도	신라천년고도 역사문화유적 및 왕경 복원, 가야문화권 관광거점 조성, 선비·유교 문화관광거점 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확대, 지역별 관광거점도시 개발, ICT기술과 문화유산의 융·복합을 통한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
	경상남도	가야역사유적 및 유물의 글로벌 가치 재조명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유교문화자원 보존기반 구축 및 유교문화 계승 발전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국토종합계획 발췌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전북지역은 농경, 가야, 전라천년문화권 관광산업에 국토종합계획(5차)의 초점이 맞추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72년부터 지속되어온 1~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후백제역사와 관련된 종합계획이 수립된 바가 없음이 확인된다. 향후 종합계획-수정계획 등에 후백제 역사문화권 관련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기본계획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제1차(1992년~2001년)		제3차 국토종합계획에 맞추어 5개 문화권에 24개 관광권역 개발
제2차(2002년~2011년)		관광권역과 행정권역의 불일치 보완, 행정권 중심 16개 관광권역 개발
제3차 (2012년~2021년)	호남 관광권 (광주·전북·전남)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중추지역으로 육성
	광주광역시	느끼고 싶은 문화예술 관광도시
	전라북도	새만금 중심의 차세대 국제관광거점
	전라남도	남도문화와 해양섬 관광 중심
제4차 (2022년~2031년)	전라권(통합)	다도해와 새만금을 품은 문화예술관광지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스마트 관광도시, 광주
	전라북도	천년 역사 및 문화여행 체험 1번지, 전북
	전라남도	해양생태 관람중심, 블루투어, 전남

이 중에서도 최근 계획된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중 전북의 전략별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략	발전방향
글로벌 관광거점 구축	전주관광거점도시와 시군 연계 활성화 추진 및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 익산, 정읍, 고창 등 세계문화유산과 무주 태권도원 활용을 통해 국내·외 신규 수요를 창출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전북의 생태, 힐링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재발견을 통해 관광자원의 명소화 실현 및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 관광상품콘텐츠의 개발
지역특화 관광자원 육성	전라북도 1시군 대표관광지 및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을 통해 지역별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전북도 관광자원의 다양화 실현, 전북다움 관광자원 육성 및 상품화 구성
관광객 맞춤 상품개발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ICT 스마트관광 상품 개발 및 새로운 관광 홍보 마케팅 도입을 통해 맞춤형 관광상품의 개발 및 신규 수요를 창출
고품격 수용태세 구축	코로나19 이후,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전북관광 환경 조성 및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한 관광서비스 질의 개선과 고품격 수용태세 구축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발췌

앞선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최근 계획된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도 구체적으로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전주관광거점도시 활성화 추진' 및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재발견'등의 키워드를 통해 후백제 역사문화자원 활성화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친대중적인 관광체계와 후백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2. 전북의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 현황 및 분석

최근 전북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된 후백제 역사문화권 관련 역사문화자원 전체 목록은 다음의 표와 같다.[24](진하게 표시된 것은 등록문화재임)

지역		주요 문화유산 (123)
전북(85)	전주(34)	**남고산성[국가사적], 동고산성[전라북도 기념물], 전라감영[전라북도 기념물],** 후백제 궁성지, 오목대 도성벽지, 자만마을 와적층, 후백제 고토성지(도성벽지), 서고산성, 고추산사지, 서서학동 사지2, 서고사, 우아동사지, 황방산 건물지, 어은산 건물지, 우아동 와요지, 우아동 도요지, 우아동 채석장, 황방산 채석장, 무릉고분군, 우아동 추정 적석묘, 우아동 석단묘, 중노송동 고분군, 용두봉 추정 화장묘, 무학동 추정 고분, 왁녀봉 유물산포지, 탐금봉 유물산포지, 매화봉 유물산포지, 효자동 유물산포지, 유연대 유물산포지, 낙수정 유물산포지, 색장동 유물산포지, 전주 반용리유적, 전주 찰방유적, 봉림사지 삼존불상
	완주(16)	**경복사지[전라북도 기념물], 용계산성[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은하리 은상 유물산포지A, 금당리 관터들 유물산포지, 금당리 왁배 유물산포지B, 금당리 왁배 유물산포지C, 금당리 용계 유물산포지, 금당사지, 보광사지, 봉림사지, 안심사지, 가천리 동향동 가마터, 가천리 동향동 유물산포지, 용복리 만수동 유물산포지D, 용복리 원용복 유물산포지B, 웅치전적지 내 후백제 적석유구 및 봉화
	진안(8)	**진안 토통리 청자요지[국가사적],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전라북도 기념물],** 진안 합미산성, 진안 환미산성, 진안 월계리산성, 진안 대불리 성재산성, 월계리와요지, 웅치전적지 내 후백제 적석유구 및 봉화

2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8~9쪽.

	장수(6)	장수 합미성[전라북도 기념물], 장수 침령산성[전라북도 기념물], 장수 삼봉리산성, 장수 삼봉리사지, 장수 탑동석탑, 장수 대적골 제철유적
	익산(3)	익산토성(오금산성)[국가사적], 미륵산성[전라북도 기념물], 익산(금마)저토성[전라북도 기념물]
	군산(3)	군산 발산리 5층석탑[보물], 군산 발산리 석등[보물], 군산 안흥Ⅱ 유적
	정읍(2)	천곡사지 7층석탑[보물], 천곡사지,
	김제(1)	금산사
	임실(2)	임실 월평리산성, 임실 진구사지
	순창(2)	순창 홀어머니산성[전라북도 기념물], 순창 신흥리 합미성[전라북도 문화재자료]
	고창(2)	고창 반암리 청자와요지, 고창 부곡리유적(기와가마)
	남원(6)	만복사지[국가사적],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부도[보물], 교룡산성[전라북도 기념물], 신계리 석불좌상[보물], 개령암지 마애불상[보물], 남원 호기리 마애불상
광주(2)		무진고성[광주광역시 기념물], 광주 누문동유적
전남(12)	담양(1)	개선사지
	구례(1)	화엄사 서5층석탑[보물]
	나주(2)	나주 철천리 석불입상[보물], 자미산성[전라남도 기념물]
	순천(4)	금둔사 삼층석탑[보물], 금둔사 석불비상[보물], 해룡산성, 봉화산성,
	여수(1)	호랑산성
	광양(2)	마로산성[국가사적], 옥룡사지[국가사적]
	보성(1)	보성 유신리 마애불상[보물]
경북(16)	문경(9)	천마산성(견훤산성), 봉암사, 금하굴, 갈전리 견훤생가터, 말바위, 가절, 희양산성, 근암산성, 숭위전
	상주(4)	견훤산성[경상북도 기념물], 견훤사당[경상북도 민속문화재], 병풍산성, 성산산성
	안동(2)	옥산서마애약사여래좌상[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차전놀이[국가중요무형문화재]
	구미(1)	구미 송곡리 숭산산성

충남(5)	논산(2)	전 견훤묘[충청남도 기념물], 논산 개태사지[충청남도 기념물]
	금산(1)	금산 백령산성[충청남도 기념물]
	홍성(1)	홍성 홍주성[국가사적]
	당진(1)	당진 합덕제[충청남도 기념물]
충북(3)	청주(2)	상당산성[국가사적], 정북동토성[국가사적]
	보은(1)	삼년산성[국가사적]

위의 목록은 각각 발굴조사 및 시굴조사,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으로 총 123개 역사문화자원 중 전라북도에는 약 74%에 해당하는 85개소가 확인되고 있다. 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정문화재 21개소(국가 9개소, 시도 12개소), 비지정문화재 64개소가 확인되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주가 가장 많은 34개소(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완주(16개소), 진안(8개소), 장수, 남원(각각 6개소), 군산, 익산(각각 3개소), 정읍, 임실, 순창, 고창(각각 2개소), 김제 1개소로 확인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에 대하여 연번, 지역명, 문화유산명, 지정/비지정현황, 지정일, 지정형태, 유적의 형태(분묘, 취락, 관방, 생산, 종교, 복합(취락유적 포함), 기타)를 중심으로 위 목록을 집성하여 전북지역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역사적 가치를 살펴보겠다.

가. 전북지역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 유형별 분류

1) 지정 및 비지정 현황

구 분		지역별 현황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지정	국가	1	2	1	1	4	-	-	1	-	-	-	-
	시도	2	-	2	-	-	-	2	1	2	-	2	-
비지정		31	1	-	1	2	1	14	6	4	2	-	2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현황을 살펴본 전북지역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 현황의 특징은 먼저 전체 문화재가 가장 많은 곳은 전주이지만 국가 및 시도지정 문화재가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은 남원이라는 점이다. 전주의 경우 후백제 역사문화권 활성화를 위하여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지정 관련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역사문화자원이 가지는 후백제 관련 성격을 규명하는 정책 및 학술적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유적의 형태별 현황

*** 웅치전적지 내 후백제 적석유구 및 봉화 유적의 경우 완주와 진안이 함께 집계되었기 때문에 상기 표에서는 1개의 유적으로 정리함**

연번	지역명	문화유산명	지정/비지정 현황	지정일	지정형태#1	지정형태#2	지정형태#3	유적의 형태
1	전주	남고산성	지정	1981.12.10	국가	사적		관방
2	전주	동고산성	지정	1981.04.01	지방		기념물	관방
3	전주	전라감영지	지정	2000.09.08	지방		기념물	기타
4	전주	후백제 궁성지	비지정					
5	전주	오목대 도성벽지	비지정					관방
6	전주	자만마을 와적층	비지정					
7	전주	후백제 고토성지(도성벽지)	비지정	·	·	·	·	관방
8	전주	서고산성	비지정	·	·	·	·	관방
9	전주	고추산사지	비지정	·	·	·	·	종교
10	전주	서서학동 사지2	비지정	·	·	·	·	종교
11	전주	서고사	비지정	·	·	·	·	종교
12	전주	우아동사지	비지정	·	·	·	·	종교
13	전주	황방산 건물지	비지정	·	·	·	·	관방
14	전주	어은산 건물지	비지정	·	·	·	·	기타

15	전주	우아동 와요지	비지정	·	·	·	·	생산
16	전주	우아동 도요지	비지정	·	·	·	·	생산
17	전주	우아동 채석장	비지정	·	·	·	·	생산
18	전주	황방산 채석장	비지정	·	·	·	·	생산
19	전주	무릉고분군	비지정	·	·	·	·	분묘
20	전주	우아동 추정 적석묘	비지정	·	·	·	·	분묘
21	전주	우아동 석단묘	비지정	·	·	·	·	분묘
22	전주	중노송동 고분군	비지정	·	·	·	·	분묘
23	전주	용두봉 추정 화장묘	비지정	·	·	·	·	분묘
24	전주	무학동 추정 고분	비지정	·	·	·	·	분묘
25	전주	옥녀봉 유물산포지	비지정	·	·	·	·	취락
26	전주	탐금봉 유물산포지	비지정	·	·	·	·	취락
27	전주	매화봉 유물산포지	비지정	·	·	·	·	취락
28	전주	효자동 유물산포지	비지정	·	·	·	·	취락
29	전주	유연대 유물산포지	비지정	·	·	·	·	취락
30	전주	낙수정 유물산포지	비지정	·	·	·	·	기타
31	전주	색장동 유물산포지	비지정	·	·	·	·	기타
32	전주	전주 반용리유적	비지정	·	·	·	·	기타
33	전주	전주 칠방유적	비지정	·	·	·	·	생산
34	전주	봉림사지 삼존불상	비지정	·	·	·	·	종교
35	완주	경복사지	지정	2000.11.17	지방	·	기념물	종교
36	완주	용계산성	지정	2000.12.29	지방	·	기념물	관방
37	완주	은하리 은상 유물산포지A	비지정	·	·	·	·	기타
38	완주	금당리 관터들 유물산포지	비지정	·	·	·	·	기타
39	완주	금당리 옥배 유물산포지B	비지정	·	·	·	·	기타

40	완주	금당리 옥배 유물산포지C	비지정	·	·	·	·	기타
41	완주	금당리 용계 유물산포지	비지정	·	·	·	·	기타
42	완주	금당사지	비지정	·	·	·	·	종교
43	완주	보광사지	비지정	·	·	·	·	종교
44	완주	봉림사지	비지정	·	·	·	·	종교
45	완주	안심사지	비지정	·	·	·	·	종교
46	완주	가천리 동향동 가마터	비지정	·	·	·	·	생산
47	완주	가천리 동향동 유물산포지	비지정	·	·	·	·	기타
48	완주	용복리 만수동 유물산포지D	비지정	·	·	·	·	기타
49	완주	용복리 원용복 유물산포지B	비지정	·	·	·	·	기타
50	완주/진안	웅치전적지 내 후백제 적석유구 및 봉화	비지정	·	·	·	·	관방
51	진안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지정	2019.09.02	국가	사적	·	생산
52	진안	진안 대량리 제동 유적	지정	2021.11.12	지방	·	기념물	생산
53	진안	진안 합미산성	비지정	·	·	·	·	관방
54	진안	진안 환미산성	비지정	·	·	·	·	관방
55	진안	진안 월계리산성	비지정	·	·	·	·	관방
56	진안	진안 대불리 성재산성	비지정	·	·	·	·	관방
57	진안	월계리와요지	비지정	·	·	·	·	생산
58	장수	장수 합미성	지정	1985.08.16	지방	·	기념물	관방

59	장수	장수 침령산성	지정	2020.07.24	지방	·	기념물	관방
60	장수	장수 삼봉리산성	비지정	·	·	·	·	관방
61	장수	장수 삼봉리사지	비지정	·	·	·	·	종교
62	장수	장수 탑동석탑	비지정	·	·	·	·	종교
63	장수	장수 대적골 제철유적	지정	2017.11.17	지방		향토 문화유산	생산
64	익산	익산토성(오금산성)	지정	1963.01.21	국가	사적	·	관방
65	익산	미륵산성	지정	1973.06.23	지방	·	기념물	관방
66	익산	익산(금마)저토성	지정	1984.09.20	지방	·	기념물	관방
67	군산	군산 발산리 5층석탑	지정	1963.01.21	국가	보물	·	종교
68	군산	군산 발산리 석등	지정	1963.01.21	국가	보물	·	종교
69	군산	군산 안흥II 유적	비지정	·	·	·	·	기타
70	정읍	천곡사지 7층석탑	지정	1963.01.21	국가	보물	·	종교
71	정읍	천곡사지	비지정	·	·	·	·	종교
72	김제	금산사	지정	2008.12.18	국가	사적	·	종교
73	임실	임실 월평리 산성	지정	2022.08.12	지방	·	기념물	관방
74	임실	임실 진구사지	지정	2020.12.28	지방	·	기념물	종교
75	순창	순창 홀어머니산성 (대모산성)	지정	2020.10.23	지방	·	기념물	관방
76	순창	순창 신흥리 합미성	지정	1975.02.05	지방	·	문화재자료	관방
77	고창	고창 반암리 청자와요지	지정	2022.01.14	지방	·	기념물	생산
78	고창	고창 부곡리유적 (기와가마)	비지정	·	·	·	·	생산
79	남원	만복사지	지정	1991.03.30	국가	사적	·	종교
80	남원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부도	지정	2022.12.28	국가	보물	·	종교

81	남원	교룡산성	지정	1973.06.23	지방	·	기념물	관방
82	남원	신계리 마애여래좌상	지정	1965.07.16	국가	보물	·	종교
83	남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지정	1992.01.15	국가	보물	·	종교
84	남원	남원 호기리 마애불상	비지정	·	·	·	·	종교

후백제관련 유적의 형태별 현황에서 먼저 그 지정형태를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가 총 11개로 이중 보물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적이 총 5건이 확인되고 있다. 지방지정 문화재의 경우 총 16건이 확인되고 있으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기념물로 총 14건, 문화재자료와 향토문화유산이 각각 1건이 확인되고 있다.

유적의 형태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면 종교(불교) 관련 유적이 총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관방이 22건, 기타 15건, 생산 12건, 분묘와 취락이 각각 6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을 지역적으로 교차분석해보면 전주지역의 경우 관방 6건, 기타 6건, 분묘 6건, 생산 5건, 종교 5건, 취락 6건 등 비교적 그 형태에 따른 유적의 분포가 고르게 보이고 있다. 완주는 기타 8건, 종교 5건, 관방 및 생산이 각각 1건 순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지안은 관방 4건, 생산 3건이 확인된다. 장수는 관방 3건, 종교 2건, 생산 1건이 확인되며, 익산 관방 3건, 군산 종교 2건, 기타 1건, 정읍 종교 2건이 확인된다. 이어서 김제는 종교 1건, 임실은 관방과 종교 각각 1건, 순창 관방 2건, 고창 생산 2건, 남원 종교 5건, 관방 1건이 확인되고 있다.

나. 전북지역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 시사점

전북지역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분포현황을 보면 전주지역이 전체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40.0%(34건)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완주 18.8%(16건), 진안 9.4%(8건), 장수와 남원 각각 7.1%(6건) 순이며 이외

의 지역에는 1~3개의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이 확인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건수가 많을수록 비지정 문화재 비중도 크다는 점이다. 전주는 34건의 관련 역사문화자원 중 31건이 비지정 문화재로 그 비율이 91.2%에 이르고 있으며, 완주의 경우에도 16건의 관련 역사문화자원 중 14건(87.5%)이 비지정문화재로 확인되고 있다. 이어서 진안(75.0%), 장수(66.7%) 역시 높은 비중으로 후백제관련 역사문화자원이 비지정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 남원의 경우에만 6건 중 2건이 지정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초단체에서는 후백제관련 역사문화자원이 비지정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문화재를 지정하여 국가차원에서의 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발굴조사와 연구 그리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제고가 병행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향후 후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기초단계로서 현재까지 조사 및 연구가 진행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 및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제고가 요구된다.

3.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 활용실태

가. 후백제 관련 대중화 사업 현황

후백제를 주제 혹은 소재로 활용한 대중화사업은 일반행사, 전시(기획전시), 공연, 축제, 미디어, 기타(발간물, 게임 등)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파악하였다. 후백제에 대한 활용현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전북지역 이외의 활용사례들도 함께 현황을 파악하였다.

1) 일반행사

순번	행사주최	행사이름	행사날짜	행사장소
1	후백제선양회	후백제견훤대왕축제행사	2023.02.13	전라매일사옥
	2017년부터 매년 견훤대왕숭모대제 실시			
	후백제선양회	후백제견훤대왕숭모제	2017.10.30	덕진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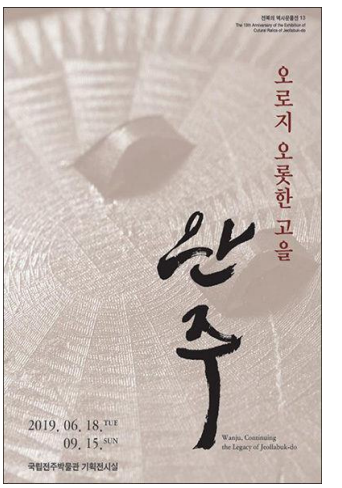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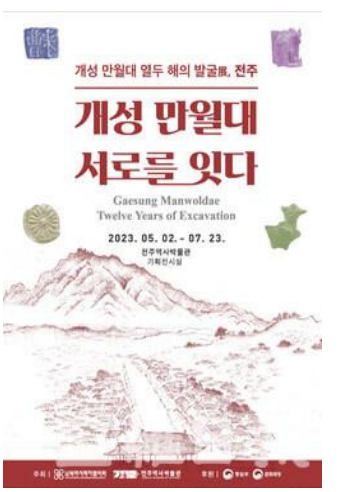
<table>
<tr><td></td><td></td><td colspan="3">
“후백제 왕도 전주‥견훤대왕 위상 드높이자”
https://www.jjan.kr/article/20171030624182 전라일보</td></tr>
<tr><td rowspan="2">2</td><td>문경시
상주시
문경향교</td><td>후백제 시왕(始王) 향사</td><td>2015.04.10</td><td>후백제
시왕(始王)
사당 숭위전</td></tr>
<tr><td colspan="4">견훤대왕의 탄생지인 문경시와 상주시의 주최로 견훤사당과 숭위전을 건립해 견훤대왕의 제례와 향사를 매년 진행
‘숭위전에서 후백제 견훤왕 향사 올려’(http://bit.ly/46o5iLv), (사)경북북부권문화정보센터</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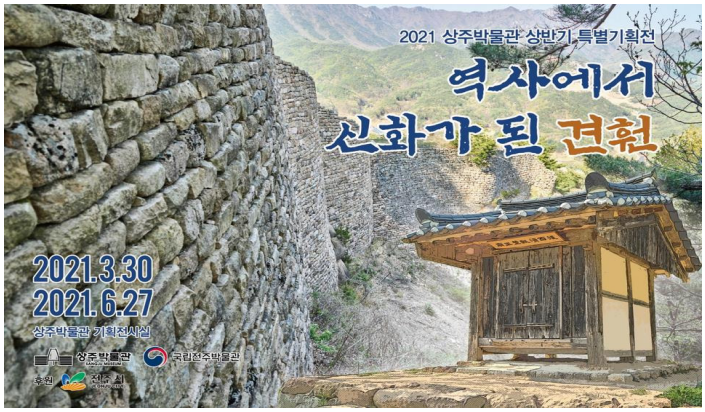
3	전주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후백제역사문화권 지정 기념식	2023.02.03	전주 왕의지밀 컨벤션센터
		 '후백제역사문화권 지정 기념식' 개최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84859 매일일보		
4	논산시 견훤왕릉보존회	2012 견훤왕 영산대재	2012.11.17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견훤 묘역
		 열한번째 '견훤왕 영산대재' 봉행 https://bit.ly/3PMU9hN 충청투데이		
5	전주시 전주대학교	온·다라인문학 고고학으로 본 후백제의 역동성	2016.06.13	전주시 인봉리, 물왕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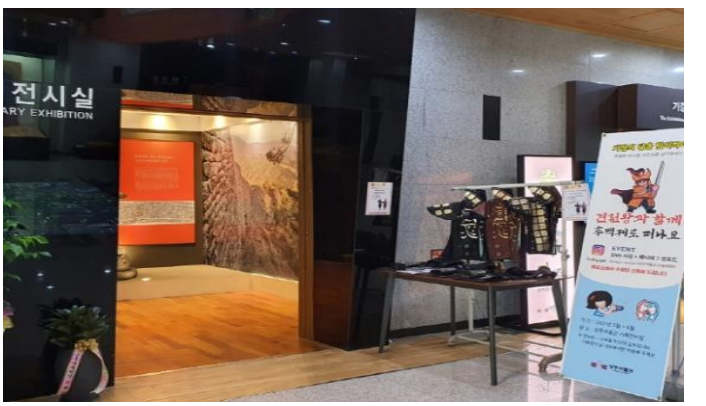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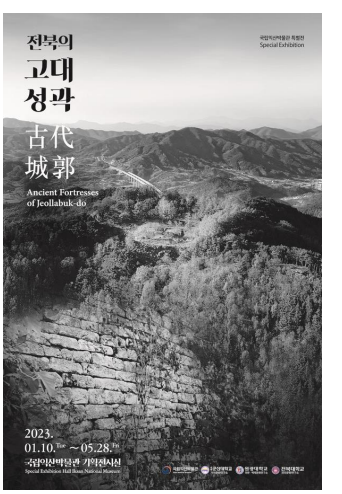
		 전주시, 온다라인문학 인문체험으로 후백제를 만나다 https://bit.ly/3t3GfPr 투데이안

2) 전시

순번	전시공간	전시제목	전시기간	기타
1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견훤, 새로운 시대를 열다	2020.10.27~ 2021.01.31	
		 견훤, 새로운 시대를 열다! http://m.jlmaeil.com/view.php?idx=193013 전라매일	

2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오로지 오롯한 고을, 완주 후백제와 봉림사지	2019.06.18.~ 09.15	
		 완주(完州)의 역사와 문화를 완주(完走)하다 http://m.jlmaeil.com/view.php?idx=193013 우리문화신문		
3	전주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개성 만월대 서로를 잇다	2023.05.02~ 07.23	
		 '고려와 후백제 왕도 전주' 전시회로 만난다 https://bit.ly/3Zq2sTH 전라일보		

4	노송동지역발전협의회 · 전주동초등학교	2016 천년을 품다 노송골	2016.11.09~ 11.10	2016 천년을 품다. 노송골 마을재생 박람회 간에 주요 전시 프로그램 가운데 후백제의 역사를 벽화로 구성
		 http://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노송골 마을재생박람회 '천년을 품다, 노송골' https://bit.ly/3Zp0yCS 전북도민일보		
5	상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역사에서 신화가 된 견훤	2021.03.30~ 06.27	
		 상주박물관, '역사에서 신화가 된 견훤' 상반기 특별기획전 개최 https://bit.ly/3ElC1iN경북일보		

6	상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역사에서 신화가 된 견훤 특별기획전과 연계한 포토존 운영 〈견훤왕과 함께 후백제로 떠나요〉	2021.05.01.~ 06.27	
		 상주박물관, 가정의 달 맞아 특별한 포토존 운영 http://m.kbnews.kr/view.php?idx=29378 경북뉴스		
7	국립익산박물관 특별전	전북의 고대 성곽 2부:역사와 문화를 쌓다 후백제 시기 유물 전시	2023.01.10.~ 05.28	
		 국립익산박물관 특별전, '전북의 고대 성곽' 개최 https://bit.ly/460gqhD 투데이안		

8	안동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고창전투 고려 왕건과 후백제 견훤이 안동(신라 당시 지명:고창)에서 결전하는 전투	-	상영물
		 https://bit.ly/48pjC8k 안동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3) 공연

순번	공연종류	공연제목	공연장소	공연날짜
1	창작무	2022년 제1회 전라북도 노인체육회장배 전북한궁대회에서 제3회 한궁체인지그러세 문화축제 간에 후백제 견훤대왕 '여민정개' 창작무 공연 (장인숙 교수의 널마루무용단)	전주기접놀이 전수관 강당	2022.07.16
		 후백제 견훤대왕 야망 담긴 '여민정개'창작무 선보여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62781 전라일보		

2	연극	극단 황토 30주년 기념작 '천년의 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2012.11.16. ~17
		  극단황토 30주년 기념작 '천년의 달' https://bit.ly/4623lis 전라매일		
3	뮤지컬	나주시 - 2023 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 통합축제 간에 '왕건-견훤 앙금 굿풀이' 뮤지컬 진행	영산강둔치체육공원	2023.10.20. ~10.29
		  나주시, '2023 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 적극 홍보 https://bit.ly/48r50VZ 웰페어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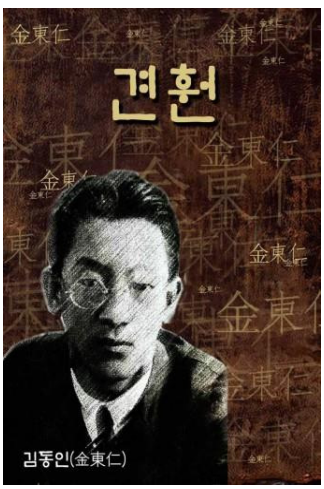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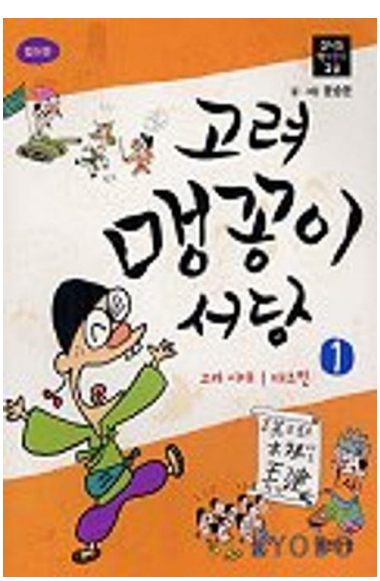
4) 축제

축 제				
순번	주최	제목	기간	기타
1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합덕 연꽃축제 합덕제 : 후백제의 견훤이 왕건의 군대와 전투하기 위하여 군마용으로 우물을 파 놓은 것이 시초였다는 전설	2018년 이후 매년 시행	
		 당진시 합덕에서 '연꽃과 문화 축제' 즐겨요 https://bit.ly/44ZYAtV 충청뉴스		

5) 미디어

순번	제목	방송사	방송 기간	관련 역	
1	태조 왕건	KBS1	2000.04.01~2002.02.24	견훤	
		https://program.kbs.co.kr/1tv/drama/king/pc/index.html 태조왕건, KBS			
2	달의 연인 : 보보경심 려	SBS	2016.08.29~2016.11.01	우희 공주 (후백제의 마지막 공주)	
		https://programs.sbs.co.kr/drama/scarletheart/main 달의 연인 : 보보경심 려, SBS			

6) 기타

순번	유형	제목	관련 인물	기타
1	소설	소설 견훤	견훤	작가/ 김동인
			견훤 출처 : yes24	
2	한국 만화	맹꽁이 서당	견훤	작가/ 윤승운
			고려 맹꽁이 서당 출처 : 교보문고	

3		후백제에서 살아남기	견금강 (견훤왕의 넷째아들)	
		  후백제에서 살아남기 출처 : 리디북스		
4	게임	천년의 신화	견훤	
		  천년의신화 출처 : 11번가		

5		태조 왕건 : 제국의 아침	견훤	
		 태조 왕건 : 제국의 아침 출처 : 트리거소프트		

7) 시사점

후백제 관련 일반행사의 경우 대부분 '견훤'을 중심으로 한 추모제 형태의 활용방안이 주목된다. 특히 견훤이 후백제 역사 상에서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특징(상주-전주-논산-나주)에 근거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일반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앞서 살펴본 연구성과나 수요층 분석의 결과와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시시설물과 연계한 전시(기획전시)의 경우 다수의 유적과 콘텐츠(국립전주박물관, 전주역사박물관)를 확보하고 있는 전주지역에서의 활용이 우세한 편이다. 이외에도 상주, 안동 등에서 후백제 관련 역사적 사건(견훤)을 중심으로 기획전시가 진행되었다.

공연의 경우도 앞선 활용방안과 마찬가지로 후백제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주목되는 점은 후삼국시대 주요한 사건 중 하나인 금성전투(나주공방전)를 콘텐츠로 2023년부터 나주시 통합축제에 견훤이 등장하는 점이다. 이는 후백제의 역사전개과정이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축제의 경우 전북지역에서 중심으로 진행되는 행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충남

당진지역에서 '합덕제'의 역사적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축제가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디어의 경우 후백제와 견훤을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린 활용방안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부터 약 2년간 KBS를 통해 방영된 태조 왕건은 앞선 수요층 분석에서도 확인되듯이 후삼국시대를 중심으로 후백제와 견훤을 대중들에게 재조명한 활용방안이었다. 이후 2016년 SBS에서 방영한 '달의 연인 :보보경심려'를 통해 후백제 공주 '우희'가 등장하면서 대중들의 주목을 끈 바 있다.

기타의 경우 단편소설『배따라기』,『감자』등으로 세간에 이름을 알린 김동인 작가의 소설『견훤』이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출간되었으며, 이외에도 2021년 웹소설『후백제에서 살아남기』등이 최근 트렌드에 맞추어 출간된 바 있다. 또한 주목되는 점은 2000년대 초반 드라마 태조 왕건의 인기와 스타크래프트 등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인기에 힘입어 후삼국 시대를 콘텐츠로 하는 '태조왕건 : 제국의 아침'이라는 게임이 출시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2000년대 이후 후삼국 시대 자체를 콘텐츠로 하는 게임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후백제 관련 대중화 사업의 경우 견훤과 후백제를 소재로 한 상설전시 및 상설공연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대중화 사업이 한시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용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부분의 연장선 상에서 후백제를 주제로 한 통합 축제의 개발이 시급하다. 통합축제는 대중들에게 후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에 백제나 신라문화권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대중화 사업이 견훤과 후백제가 중심이 아닌 '후삼국과 태조 왕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백제가 후삼국 시대의 배경이 아닌 주역으로 재생산된 콘텐츠와 대중화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나. 후백제 관련 정책 현황[25)]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점(點)단위 문화재 보존 위주의 한계를 벗어나 면(面)단위 '역사문화권' 개념을 도입하여,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의 통합적이며 거시전인 보존 및 관리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연사문화권정비법은 해당 역사문화권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조사·연구 및 발굴·정비하여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관광자원화를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특히 후백제역사문화권의 경우 2022년 대정을 통해 9개 역사문화권(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중원·예맥·후백제역사문화권)에 포함되었으며 향후 후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역사문화권정비법에 의한 향후 목표 및 정책과제는 다음의 표와 같다.

목표	정책과제
[목표 1] 역사문화권 가치창출 기반 마련	ㅇ정책과제1 :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제도적 기반구축(7개 과제) ㅇ정책과제2 :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조사 및 연구(7개 과제)
[목표 2] 역사문화권 정비를 통한 지역활성화	ㅇ정책과제3 :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모델 추진(4개 과제) ㅇ정책과제4 : 역사문화기반 창업지원 및 산업활성화 추진(3개 과제)
[목표 3] 참여와 협력을 위한 역사문화권 거버넌스 형성	ㅇ정책과제5 : 시민 참여 및 활동 유도(6개 과제) ㅇ정책과제6 : 전문인력 강화 및 국제교류(7개 과제)

역사문화권정비법에 의한 향후 목표 및 정책과제

역사문화권정비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이 단위 문화재에 대한 지원과 함께 보호와 보전 중심이었다는 점과는 다르게 조사와 연구에 대한 성과가 향후 문화산업 활성화 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점에서 확장된 면단위 문화권의 설정 및 지원이 중심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책과제의 체계 역시 가치창출과 지역활성화 기조에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정책과제에 따른 구체적인 체계도이다.

25)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은 전북도청 문화유산과의 내부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목표 1. 역사문화권 가치창출 기반 마련

정책과제 1.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제도적 기반구축	
1-1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기준 마련	1-1-1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기초가이드 마련
	1-1-2 정비시행계획 계획수립 지침 마련
1-2 정비사업 지원체계 및 법제도 정비	1-2-1 정비사업 지원체계 및 운영방안 마련
	1-2-2 역사문화권 성과 모니터링 관리체계 구축
	1-2-3 역사문화권 효과적인 정비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
1-3 부처·부서 협력체계 마련	1-3-1 부처협업 연계 정책모델 개발
	1-3-2 지자체 역량 증진 지원
정책과제 2.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조사 및 연구	
2-1 역사문화권 기초조사	2-1-1 역사문화환경 목록화 조사
	2-1-2 역사문화권 시·공간 범위 및 개념 정립 연구
2-2 역사문화권 조사 및 연구 인프라 구축	2-2-1 역사문화환경 조사·연구 및 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2-2-2 역사문화권 DB 및 포털 구축
2-3 역사문화권 가치심화연구 및 발굴조사 정비	2-3-1 역사문화권 가치조명 심화연구
	2-3-2 역사문화권 비지정 유적 발굴조사 및 정비
	2-3-3 국가에 의한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및 정비

정책과제 체계도 목표 1

○ 목표 2. 역사문화권 정비를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

정책과제 3.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모델 추진	
3-1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 추진	3-1-1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 지원체계 구체화
	3-1-2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 추진
3-2 역사문화 SOC 조성	3-2-1 역사문화 SOC 개념정립 및 실행 타당성 검토 연구
	3-2-2 역사문화 SOC 조성사업 추진
정책과제 4. 역사문화기반 창업지원 및 산업활성화 촉진	
4-1 역사문화기반 창업지원 및 육성	4-1-1 역사문화기반 창업지원 육성
4-2 유적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활용 연구	4-2-1 역사문화환경 디자인 가이드 개발연구
	4-2-2 유적 가치제고를 위한 기술개발(R&D) 기획연구

정책과제 체계도 목표 2

○ 목표 3. 참여와 협력을 위한 역사문화권 거버넌스 형성

정책과제5. 시민참여 및 활동 유도	
5-1 역사문화권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5-1-1 시민참여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1-2 지역활동가 교육 및 육성
	5-1-3 협의체 구성 및 활동지원
5-2 기관·기업·단체의 참여유도	5-2-1 관련 공공기관 협업체계 마련 연구
	5-2-2 민간기업 역사문화권 활동 및 참여 유도방안 연구
	5-2-3 역사문화권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정책과제6. 전문인력 강화 및 국제교류	
6-1 역사문화권 전담기구 설립 지원	6-1-1 국립역사문화센터 건립 추진
	6-1-2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기본구상 연구
	6-1-3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지원
6-2 역사문화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6-2-1 역사문화권 거점대학 선정 및 정비업무 수행
	6-2-2 한국 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수원 교과과정 개설
6-3 학술연구 및 국제교류 확대	6-3-1 학술대회 및 학술주간 등 행사 개최
	6-3-2 국제교류·협력 및 대응전략 연구

정책과제 체계도 목표 3

2)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세부추진 방안

구 분	주요 사항	세부 추진 내역
1.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TF팀 운영	TF팀 kick-off 회의
		지자체별 후백제 유산 자체 발굴
		후백제 유적 발굴조사 및 학술조사 방안 마련
		후백제 유적 정비 및 단기·장기 사업 활용 방안 마련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확보
		용역사업 발주, 기초조사 및 종합분석
		정비 기본방향 설정, 기본 구상
		정비 실행 계획 수립
	시·군 후백제역사문화권 시행계획 수립	후백제역사문화권 시·군 자체 용역 계획
		시·군 자체(연구.정비.복원.활용) 용역 수립
		시행계획 전라북도 신청·승인
		시행계획 문화재청 최종 승인

	후백제 역사문화권 선도사업 추진	후백제 역사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
		후백제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발굴 조사(고분, 사지)
		후백제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후백제 역사공원 설계 및 건립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2. 유적 발굴 및 학술연구	전주 도성(고도) 체계 발굴 조사	고도지정을 위한 왕궁지 발굴조사
		고도지정을 위한 사찰 발굴조사
		고도지정을 위한 후백제 도성지 발굴조사(총 5개 구역)
		고도지정을 위한 왕릉 발굴조사
	전주 도성 주변 발굴조사	전주 서고산성 발굴조사
		전주 우아동 도요지, 와요지(추가) 발굴조사
		전주 완산 일대 후백제 화장묘 추가 발굴조사
		전주 대성동, 색장동 일대 후백제유적 발굴조사
	도내 주요유적 발굴조사	김제 금산사 일원(견훤성, 금구산성)
		임실 대리산성 발굴조사
		진안 도통리 일원 발굴조사
		장수 합미산성 일원 발굴조사
	후백제 역사 재조명 학술연구	김제 금산사 재조명 학술연구용역
		후백제 도성 전주 학술연구(역사, 도시사)
		후백제역사문화권 규명(문헌사, 고고학) 학술조사
		후백제역사문화권 유적 조사 성과 발표대회
3. 학술대회 및 홍보	역사문화권 정비법 관련 학술대회	후백제 역사문화권 활용방안 학술대회
		역사문화권 정비방안 국회토론회
		후백제 역사문화권 TF 워크숍
		후백제 역사문화권 전문가 간담회
	후백제 실체규명 학술대회	후백제와 전라북도 재발견 학술세미나
		전북 후백제 역사 실체규명 학술대회
		전북 후백제유적 발굴과 정비방안 정기 워크숍
	학술단체 활성화 및 선양사업	후백제 숭모대제(견훤대왕 제례)
		후백제 학술단체 활성화 지원
		후백제 견훤대왕 표준영정 제작
		후백제 선양방안과 제의를 위한 토론회

	후백제유적 답사 및 체험활동	후백제 유적답사
		후백제 유적홍보
		후백제 역사문화 관광지 구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후백제 문화유산 가이드북 제작
4. 문화재 지정 및 유적정비	동고산성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승격	동고산성 국가 사적 현지실사
		동고산성 국가 사적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동고산성 국가 사적 문화재청 지정예고
		동고산성 국가 사적 문화재청 지정고시 및 지정완료
	후백제 유적 문화재 지정	봉림사지 삼존석불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전주 서고산성 일원 전라북도 기념물 지정
		진안 합미산성 일원 전라북도 기념물 지정
		장수 탑동석탑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후백제 역사문화권 콘텐츠 발굴	후백제 역사문화권 문화영상 콘텐츠 제작
		후백제 역사문화권 어린이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후백제 역사문화권 어린이 콘텐츠 활용 및 배포
	후백제 유적 정비 및 복원	동고산성 사적지정 종합정비계획 수립
		후백제 산성(서고산성 등) 유적 정비
		후백제 추정 궁성지 재개발사업 사업 연계 추가 조사
		후백제 추정 궁성지 복원·정비 계획수립
		후백제 추정 궁성지·도성지 토지매입 및 안내판 설치
		후백제 추정 궁성지·도성지 복원 활용
5.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예산 및 당위성 확보 (전주시)	기본계획 및 추진일정 수립
		전주시 건립을 위한 타당성 기본 연구 용역
		관계부서(문화재청, 기재부) 및 국회 국가예산 활동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계획 수립
		연구용역 국비(2억) 예산 확보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수행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안 마련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조성 업무협의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부지 검토 및 협의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부지 최종 선정 협의
	실시설계 및 조성 공사 (문화재청)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실시설계 용역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공사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내부 전시설계 및 전기시설 공사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개관
6. 전주시 고도(古都) 지정	전주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전주고도 역사성 조사 분석
		전주고도 골격 추출(왕궁,왕릉,사찰,왕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 계획 수립
		지구지정(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보존지구) 기본안 마련
	지역 의견 수렴 및 사전 보고	전주시민 사전설명회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개최
		문화재청 의견 수렴 보고회
		주민설명회, 주민대표 합동토론회 개최
	전주시 고도지정 신청서 제출	고도지역 지구지정 최종 연구 완료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전라북도 의견 수렴
		기본계획서 신청서 제출(전라북도→문화재청)
	문화재청 고도보존과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도 지정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의결
		문화재청 고도보존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문화재청(고도보존육성과) 고도 지정 지정예고
		문화재청(고도보존육성과) 고도 지정 고시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세부추진 방안

3) 마한·백제·후백제 역사문화권 사업(전라북도)

본 사업은 사업비 14,042백만원(국비 8,640, 도비 2,371, 시군비 3,031)으로 마한·백제·후백제의 역사문화 재조명과 보존·관리를 통해 백제 역사 중심지로서 전라북도의 지역 정체성을 정립하고,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콘텐츠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된 사업이다. 후백제 관련 학술연구사업으로는 전주 우아동고분군 발굴 등 4개 사업, 예산 700백만원이 예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으로는 '전주시 후백제 도성벽 발굴조사', '전주시 우아동 고분군 시발굴조사', '김제시 금산사 후백제 학술연구', '임실군 대리산성 발굴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사업기간은 2023.2.~12.로 사업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지역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700,000	350,000	350,000
1	전주	우아동 고분군 정밀발굴조사	39,000	19,500	19,500
2	전주	후백제 도성벽 추정지 사발굴조사	411,000	205,500	205,500
3	김제	김제 금산사 학술연구 조사	100,000	50,000	50,000
4	임실	임실 대리산성 발굴조사	150,000	75,000	75,000

다음으로 후백제 역사에 대한 전북도민 및 대중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후백제 역사 규명 학술대회 및 홍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기간은 23.2.~12.로 사업비 80백만원, 5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사업명	사업내용
후백제 실체규명 학술대회 (30백만원)	전북 후백제 역사문화권 활용방안 학술대회('23. 5월 예정) 전북 후백제와 견훤에 대한 인식 학술대회('23. 10월 예정)
학술단체 활성화 (20백만원)	후백제 학술단체 활성화 지원(후백제학회 주관) *(내용) 전문학술지 제작 및 배포, 강연회, 후백제 누리집 구축
후백제 선양사업 (20백만원)	제7회 후백재 숭모대제(후백제선양회 주관) *(내용) 전주 후백제왕도 유적 답사, 강연, 전통공연, 자원봉사자 교육 활동 등
후백제 유적 답사 및 체험활동 (10백만원)	후백제 문화유적 현장답사 및 체험활동(문화재 전문기관 주관) *(내용) 도민 대상 후백제 유적답사 및 정화활동, 후백제 유적 발표 등

4) 후백제 역사문화권(역사문화권정비법) 후속사업

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을 통한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설정 이후 가장 큰 현안은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연구센터'(이하 센터) 건립 추진이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후백제 왕도이자 후백제 역사문화자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전주에 후백제역사문화권 거점 중심기관 건립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200억원)규모로 조성될 계획인 센터는 연구실, 자료관, 전시관, 수장고, 교육 체험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향후 후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사업위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976-1번지 일원		
사업기간	2024 ~ 2030년(7년)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400억원)		
	국비 기투자액(´23년)	´24년 국비요구액	´25년 이후
	-	2억원	-
사업내용	연구실, 자료관, 전시관, 수장고, 유적공원, 교육, 체험 등(총 부지 25,000㎡)		
시행기관	문화재청, 전라북도, 전주시		
위치도(예정)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예정지
자만
벽화마을
전주한옥마을
국립무형유산원
후백제전주성
(동고산성)
동고사
전주천
완산공원
전주역
CGV
전주고사
NC백화점
GS칼텍스
남부시장유류소
전주시청
전주시립
미술관
전주시립
국악원
전주시립
교향악단
전주시립
무용단
전주시립
국악원
전주시립
교향악단
전주시립
무용단
전주시립
국악원
전주시립
교향악단
전주시립
무용단

제 3 장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 연구성과 검토

1. 학술지 논문 연구성과 기초자료
2. 학위논문 연구성과 기초자료
3. 저서 연구성과 기초자료
4. 관련 연구성과 분석 및 시사점

제 3 장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 연구성과 검토

관련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그 성격을 규명하는 기초적인 단계이며 가치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학술논문, 학위논문, 저서를 중심으로 후백제 관련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서 전북지역 후백제 역사문화자원이 가지는 역사적인 가치와 그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검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성과 목록을 추출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검색 키워드	후백제
검색건수	1,008건(23.5.23. 기준)
발간년도	1913~2023
목록 추출 범례	①연번 ②발간년도(발간월일은 표기하지 않음) ③논문명 또는 저서명 ④학술지명 ⑤학술지 권호 ⑥발행처(학회, 출판사 등) ⑦형태(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학술지논문, 저서, 보고서 등) ⑧주제어(초록의 주제어 기재) ⑨핵심주제어(논문명과 초록의 주제어에 동시에 들어간 핵심주제어 1개 기재) ⑩발간지역(해당발행처 소속 지역)

1. 학술지 논문 연구성과 기초자료(총 123건)

연번	발간년도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처	발간지역	핵심주제어
1	1913	後百濟疆域考	朝鮮歷史地理	南滿州鐵道株式會社	東京	
2	1927	後百濟及び高麗太祖朝の日本通聘	史學雜誌	東京大學文學部內史學會	東京	
3	1966	高麗建國考	동아논총	동아대학교학술지	부산	

4	1967	後百濟의 興亡考	백제문화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충남	
5	1973	후백제 금강에 관하여	대구사학	대구사학회	대구	
6	1974	「武康王傳說」의 硏究	百濟硏究	百濟硏究 第5輯	대전	
7	1975	後三國의 成立過程-後百濟·後高麗 成立의 背景을 中心으로	硏究論文集	江原大學校	춘천	
8	1978	「甄萱傳」의 形成에 對하여	어문논지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대전	
9	1981	高麗史 後百濟關係記事의 再檢討 : 歷史哲學的 見地에서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호남대학교	광주	
10	1984	高麗太祖의 歷史認識 II	백산학보	백산학회	전국	
11	1985	後百濟 甄萱 硏究 1; 甄萱關係 文獻의 豫備的 檢討	百濟論叢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서울	
12	1985	後百濟 金剛에 關하여	三國史記 硏究論選集 (國內編)	백산학회	서울	
13	1987	後百濟의 支配勢力에 대한 分析-특히 後百濟의 멸망과 관련하여	斗溪李丙燾博士 九旬紀念 韓國史學論叢	지식산업사	서울	
14	1988	高麗太祖 王建의 外交에 대하여; 後百濟往復 外交文書를 中心으로	溪村閔丙河敎授 停年紀念 史學論叢	계촌민병하교수정년 기념사학논총간행위 원회	서울	
15	1991	後百濟와 관련된 여러 異說들의 종합적 검토	國史館論叢	國史編纂委員會	과천	
16	1993	後百濟 甄萱政權硏究	이화사학연구	이화여자대학교사학 연구소	서울	
17	1994	後百濟地域 佛敎彫刻 硏究	미술사학연구	한국미술사학회	전국	
18	1994	高麗太祖 王建과 後百濟 神劍의 전투	滄海朴秉國敎授 停年紀念史學論 叢	간행위원회	공주	

19	1997	나말여초의 對日關係史 硏究	한국민족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	
20	1999	후백제 견훤의 역사계승인식	사학연구	한국사학회	전국	
21	1999	후백제 견훤정권의 성립과 농민	백제연구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대전	
22	2000	後百濟 甄萱의 戰略과 領域의 變遷	군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국	
23	2000	930년대 후백제 정권 내부의 동향	복현사림	경북사학회	경북	
24	2000	曹物城싸움을 둘러싼 高麗와 後百濟	國史館論叢	國史編纂委員會	과천	
25	2001	일리천전투와 후백제의 패망	대구사학	대구사학회	대구	
26	2001	後百濟의 加耶故地 進出에 관한 檢討	백산학보	백산학회	전국	
27	2001	後三國의 外交關係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金潤坤敎授定年紀念論叢-	韓國中世史學會	대구	
28	2002	後百濟甄萱의 農民施策에 관한 再檢討	백산학보	백산학회	전국	농업시책
29	2002	後百濟 甄萱 政權의 沒落過程에서 본 그 思想的 動向	한국사상사학	한국사상사학회	전국	
30	2002	後百濟 甄萱과 海洋勢力 : 王建과의 海洋爭覇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회	전국	해양세력
31	2002	후백제의 멸망과 견훤	한국사학보	고려사학회	전국	견훤
32	2003	後百濟 '全州'와 中國 '全州'의 관계	백산학보	백산학회	전국	전주
33	2003	高麗 太祖의 後百濟 遺民政策과 '訓要 제8조'	이화사학연구	이화사학연구소	서울	훈요 제8조
34	2003	後百濟 全州의 都城구성에 나타난 四靈체계 : 전주 거북바위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학회	전국	전주
35	2003	견훤의 후백제 건국과 전남지역 호족세력의 추이	경주사학	경주사학회	경북	호족세력
36	2004	근·현대 한국 사학의 후백제 서술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학회	전국	서술

37	2004	후백제의 당대 인식 : 토대와 지향의 맥락에서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학회	전국	인식
38	2004	936년 고려의 통일전쟁과 개태사	한국학보	일지사	전국	
39	2004	후백제 도읍지 전주의 해석 -풍수지리의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한국전통조경학회	전국	전주
40	2004	甄萱政權과 日本의 交涉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학회	전국	교류
41	2004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후백제사 서술의 문제점	전통문화논총	한국전통문화학교	부여	
42	2005	역사도시 전주의 도시구성변화와 특성 : 후백제시기와 이후시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전국	
43	2005	해외현장탐방 / 일본심포지움 발표문 : 後百濟 王都文化의 傳統都市 全州	인문콘텐츠5호	인문콘텐츠학회	전국	
44	2005	百濟系石塔의 건립 背景에 關한 考察	문화사학	한국문화사학회	전국	백제계 석탑
45	2006	현존하는 후백제시기의 유적과 유물	초등교육연구	전주교육대학교초등교육연구소	전북	유적과 유물
46	2006	후백제와 태봉관련 연구동향과 전망	신라문화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경북	태봉
47	2007	고려초(高麗初) 후백제계(後百濟系) 인물(人物)들의 활동	한국중세사연구	한국중세사학회	전국	후백제계
48	2007	태봉과 후백제의 덕진포해전	군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국	해전
49	2008	후삼국시대의 한국인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 후고구려·후백제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세종	정치의식
50	2009	片雲和尙浮圖를 통해 본 實相山門과 甄萱政權	백제연구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대전	편운
51	2010	견훤의 군사적 기반	신라문화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경북	군사
52	2010	전주 동고산성의 성격에 대한 소고 : 6차 발굴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성곽학보	한국성곽학회	전국	동고산성

53	2010	順天 鴻方洞土城에 對한 硏究 : 순천의 호족 박영규를 중심으로	한국성곽학보	한국성곽학회	전국	박영규
54	2010	後百濟 佛敎美術의 特徵과 性格	동악미술사학	동악미술사학회	전국	불교미술
55	2010	광양 마로산성 출토 막새기와에 대한 고찰	문화사학	한국문화사학회	전국	마로산성
56	2010	9世紀 後半 武州地域의 政治的 動向과 甄萱의 自立	역사교육논집	역사교육학회	전국	무주
57	2011	후삼국시대 나주지역의 해양전략적 가치	도서문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전남	나주
58	2012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 조성배경 再考 : 太祖 王建軍 屯營址 馬城의 위치와 관련하여	백산학보	백산학회	전국	개태사
59	2012	고려와 후백제의 공산전투	한국중세사연구	한국중세사학회	전국	공산전투
60	2012	전주 전통문화도시의 우주적 공간체계	인문콘텐츠	인문콘텐츠학회	전국	전주
61	2012	입당 유학생 최승우와 후백제 견훤 정권	신라사학보	신라사학회	전국	최승우
62	2013	진안고원 초기청자의 등장배경 연구	전북사학	전북사학회	전북	진안
63	2013	후백제군의 포석정 습격과 경순왕 옹립	한국고대사탐구	한국고대사탐구학회	전국	포석정 습격
64	2013	후백제의 수군활동과 전략전술	한국중세사연구	한국중세사학회	전국	수군
65	2014	후백제의 역사적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학회	전국	역사적 성격
66	2014	신라 하대 서남해 지역 禪僧과 후백제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학회	전국	서남해
67	2014	후백제 도성 동고산성의 보존과 활용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학회	전국	동고산성
68	2014	후백제의 왕궁 위치와 도성 규모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학회	전국	왕궁
69	2014	全州 東固山城의 考古學的 檢討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학회	전국	동고산성
70	2014	後百濟의 全州 遷都와 彌勒寺 開塔	한국사연구	한국사연구회	전국	전주
71	2015	후백제(後百濟)와 오월국(吳越國) 교류(交流)에서의 신지견(新知見)	백제문화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충남	교류
72	2015	後百濟의 海上活動과 對外關係	한국고대사탐구	한국고대사탐구학회	전국	해상활동
73	2015	백제계 석탑의 특징과 건립배경	강원사학	강원사학회	강원	백제계 석탑
74	2015	후백제 불교조각의 대외교섭	백제연구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대전	불교조각

75	2015	전남지역의 후백제유적과 역사적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한국상고사학회	전국	전남 후백제유적
76	2015	後百濟 王宮과 都城體制 硏究 試論	전북사학	전북사학회	전북	왕궁
77	2015	후백제의 대신라 고려 관계	한국중세사연구	한국중세사학회	전국	관계
78	2015	후백제 왕궁성의 위치와 그 활용방안	초등교육연구	전주교육대학교초등교육연구소	전북	왕궁
79	2015	後百濟의 佛敎美術과 그 影響	전북사학	전북사학회	전북	불교미술
80	2016	後百濟 防禦體系 硏究 試論	백제문화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충남	방어
81	2016	후삼국시대사론	신라사학보	신라사학회	전국	후삼국
82	2016	후백제 견훤 정권의 고부 경영과 해상교통	전북사학	전북사학회	전북	해상교통
83	2016	後百濟의 對중국 교류 연구	사학연구	한국사학회	전국	교류
84	2016	후백제 도성 신자료 소개	동원학술논문집	한국고고미술연구소	전국	도성
85	2016	井邑 山內 龍藏寺 관련 기록의 검토 - 後百濟代 창건을 중심으로 -	전북사학	전북사학회	전북	용장사
86	2016	동고산성 성문의 형식변화에 대한 검토	호남고고학보	호남고고학회	전남	동고산성
87	2016	後百濟와 高麗의 吳越國 交流 硏究와 爭點	한국고대사탐구	한국고대사탐구학회	전국	교류
88	2016	고려와 후백제의 해양쟁패전	한국중세사연구	한국중세사학회	전국	해전
89	2016	후삼국시기 선승들의 활동지역과 정치적 배경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전국	선종
90	2016	후백제(後百濟)의 항복(降服) 동선(動線)과 마성(馬城)	동아시아 문화연구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서울	항복
91	2017	외교문서를 통해 본 후백제와 일본의 외교 양상	역사학보	역사학회	전국	교류
92	2017	후삼국의 대중국 외교	한국중세사연구	한국중세사학회	전국	교류
93	2018	월남사 가람배치에 관한 고찰	백제연구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대전	월남사
94	2018	고려와 후백제의 마지막 결전지, 구미 태조산 일원	내일을 여는 역사	재단법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전국	

95	2018	통일에서 분열로	신라사학보	신라사학회	전국	분열
96	2018	완주 鳳林寺址 三尊石佛의 훼손과 변천에 대한 試論的 考察	전북사학	전북사학회	전북	봉림사지
97	2019	익산 왕궁리오층석탑과 후백제	한국중세사연구	한국중세사학회	전국	왕궁리유적
98	2019	후백제 불교미술품과 고고자료의 검토	호남고고학보	호남고고학회	전남	불교미술
99	2019	後百濟王 甄萱의 900~901年 言行의 意味	전북사학	전북사학회	전북	견훤
100	2019	후백제 멸망과 그 유민	한국중세사연구	한국중세사학회	전국	유민
101	2019	후삼국 통일전쟁과 운주전투	군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전국	운주전투
102	2020	태봉(후고구려)-후백제 역사벨트 조성과 현대적 계승	글로벌문화콘텐츠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전국	역사벨트
103	2020	『삼국사기』 궁예·견훤열전의 원전과 편찬	역사와 경계	부산경남사학회	부산, 경남	삼국사기
104	2020	후백제와 태봉 불교석조미술품의 특징과 영향	동악미술사학	동악미술사학회	전국	불교미술
105	2020	완주 봉림사지 기와의 변천과 후백제	호남고고학보	호남고고학회	전남	기와
106	2021	후백제 중심권역의 와전문화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기와학회	전국	
107	2021	무진주 시기 견훤 정권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학회	전국	무진주
108	2021	후백제와 고려의 각축전과 상주(尙州)와 문경(聞慶) 지역 호족의 동향	지역과 역사	부경역사연구소	부산, 경남	호족세력
109	2021	후백제 역사성격과 후백제 문화권설정	전북학연구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전북	역사성격
110	2021	후백제 진훤의 受禪 전략	민족문화논총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경북	진훤
111	2021	後百濟 견훤정권의 禪僧 정책 - 견훤의 선승 포섭과 그 의도 -	전북학연구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전북	선종
112	2021	후백제 주도 세력의 변화와 그 영향	신라사학보	신라사학회	전국	세력

113	2021	후백제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전북학연구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전북	연구
114	2021	후백제 고고학의 연구현황과 과제	전북학연구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전북	고고학
115	2021	후삼국사의 몇 가지 문제	신라사학보	신라사학회	전국	후삼국
116	2021	後三國時代의 水軍 운용과 주요 水戰 및 水路 활용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한국고대사탐구학회	전국	수군
117	2022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의 특징과 조성 배경	전북사학	전북사학회	전북	실상사
118	2022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립과 추진 방향	한국전통문화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충남	후백제역사문화권
119	2022	호남지역 고려사회 형성의 역사적 특징	한국중세고고학	한국중세고고학회	전국	호남
120	2022	광양 성불사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위상	인문사회과학연구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광주	성불사
121	2022	삼국유사 기이편후백제 견훤조의 원전과 편찬	사학연구	한국사학회	전국	삼국유사
122	2023	고고학적 자료로 본 견훤 도읍기 무진주	『歷史學硏究』	湖南史學會	광주	무진주
123	2023	후백제 관련 자료의 현황과 쟁점	『지방사와 지방문화』	역사문화학회	서울	후백제

학술지 논문 연구성과 기초자료(총 123건)

2. 학위논문 연구성과 기초자료(총 12건)

연번	발간년도	논문명	발행처	형태	발간지역	핵심주제어
1	1982	後三國의 相互抗爭에 關한 硏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후삼국
2	1988	高麗初期 王權에 관한 硏究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부산	·
3	1989	高麗時代의 身分位階法制에 관한 硏究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창원	·
4	1989	후백제 견훤정권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견훤
5	1993	後百濟의 崩壞 過程과 古昌 戰鬪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북	고창
6	1998	高麗와 後百濟의 爭覇過程 硏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경북	·
7	2006	견훤의 군사적 기반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남	군사
8	2007	왕건과 견훤의 세력 형성과 해양쟁패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남	해양
9	2009	9世紀 後半 武州地域의 政治的 動向과 甄萱의 自立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구	무주
10	2015	후삼국시기 선승들의 활동지역과 정치적 배경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선승
11	2015	백제계 석탑의 특징과 건립 배경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원	석탑
12	2020	後百濟의 對中 외교와 그 정치적 의미 : 吳越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외교

학위논문 연구성과 기초자료(총 12건)

3. 저서 연구성과 기초자료(총 42건)

연번	발간년도	저서명	발행처	발간지역	주제어	비고
1	1988	高麗初期 王權硏究	東亞大學校出版部	부산	·	후백제 관련 연구 포함
2	1993	後百濟 甄萱政權硏究	一潮閣	서울	후백제 ; 견훤정권연구	·

3	1996	한국사(신편) 11 :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국사편찬위원회	경기	·	후백제 관련 연구 포함
4	1996	甄萱의 出生과 遺蹟	聞慶市	경북	견훤 ; 출생 ; 유적	·
5	1998	진훤이라 불러다오	푸른 역사	서울	·	·
6	1999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 창립 1주년기념 학술회의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전북	·	·
7	2000	전주의 역사와 문화	신아출판사	완주	·	후백제 관련 연구 포함
8	2000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서울	·	·
9	2001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서울	·	·
10	2001	韓國古代史의 諸照明	신서원	서울	방학봉, 후백제 甄萱의 역사계승인식	후백제 관련 연구 포함
11	2002	後百濟의 對外交流	전주시후백제문화사업회	전북	후백제 ; 교류 ; 후백제교류 ; 학술대회	·
12	2002	10세기 인물 열전 : 쇠유리부터 능창까지 후삼국 22인의 삶	푸른역사	서울	·	후백제 관련 연구 포함
13	2003	(史料와 傳說로 보는)甄萱	문경문화원	경북	후백제 왕조(後百濟王朝) ; 후백제(국명)[後百濟 ; 한국사 사료(韓國史史料) ; 향토 사료(鄕土史料) ; 사료 ; 전설 ; 견훤 ; 향토사료 ; 후백제 ; 왕조 ; 후백제왕조 ; 국명 ; 한국사 ; 한국사사료 ; 향토 ; 문경 ; 지명	·

14	2004	한국고대의 지방사회	혜안	서울	한국고대 ; 지방사회	후백제 관련 연구 포함
15	2006	후백제문화 재조명 학술조사보고서	전주시	전북	·	·
16	2006	전주학 서설	전주역사박물관	전북	·	후백제 관련 연구 포함
17	2007	백제 유민들의 활동	충청남도역사문화 연구원	충남	·	후백제 관련 연구 포함
18	2008	후백제 전쟁사 연구	혜안	서울	·	·
19	2008	후삼국사	충북대학교 출판부	충북	후삼국 시대(後三國時代)	후백제 관련 연구 포함
20	2009	후백제문화 재조명 : 학술조사보고서	전주시·전주역사 박물관	전북	·	·
21	2010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	서경문화사	서울	고려 ; 후삼국 ; 후백제	·
22	2010	호남인의 기원과 문화원형	혜안	서울	한국사 ; 전남지역 ; 호남인	후백제 관련 연구 포함
23	2011	상주의 인물	상주문화원	경북	상주(경상북도)	후백제 관련 연구 포함
24	2011	삼국사기 인식론	일지사	서울	삼국사기	후백제 관련 연구 포함
25	2012	충청의 얼을 찾아서	서경문화사	서울	지방사 ; 충청도 ; 역사문화 ; 향토문화	후백제 관련 연구 포함
26	2013	후백제 왕도 전주	전주역사박물관	전북	·	·
27	2013	후백제 왕도 전주의 재조명 : 한국고대사학회 학술대회	한국고대사학회	서울	·	·
28	2013	羅末麗初 南宗禪 硏究	일조각	서울	·	후백제 관련 연구 포함
29	2014	(학술심포지엄) 대외관계로 본 후백제	백제학회	서울	역사 ; 대외관계 ; 후백제	·

30	2015	후백제 진훤(甄萱) 대왕	주류성	서울	·	·
31	2015	후삼국시대 전쟁 연구 : 45년간 펼쳐진 영웅들의 명승부	주류성	서울	·	후백제 관련 연구 포함
32	2016	후백제와 오월 : 국제학술심포지엄	국립전주박물관	전북	후백제 ; 오월	·
33	2016	후삼국시대 수군활동사	혜안	서울	후삼국시대 ; 수군활동사	·
34	2017	전주 풍남동 후백제 도성 추정지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전주박물관	전북	전주 ; 풍남동 ; 후백제 ; 도성 ; 추정지 ; 발굴조사 ; 보고	·
35	2017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 동북아 해양문물 교류의 허브, 새만금 - 9분과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전남	·	후백제 관련 연구 포함
36	2018	후삼국 통일전쟁사 연구	혜안	서울	후삼국 시대[後三國時代] ; 수군(해군)[水軍]	·
37	2019	해양강국 고려와 전남 - 견훤의 후백제 건국과 전남 동부지역 해상세력의 추이 -	민속원	서울	고려 시대, 해양	·
38	2021	후백제와 견훤	전주시	전북	후백제 ; 한국사 ; 한국고대사 ; 후삼국 ; 견훤	·
39	2021	전북 고대문화 역동성	서경문화사	서울	문화 유산(文化遺産) ; 고대 문화(古代文化)	후백제 관련 연구 포함
40	2021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의 성립	주류성	서울	신라사, 후삼국사	·
41	2022	전주 후백제 궁성 추정지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전북	·	·
42	2022	후백제사 연구	학연문화사	서울	·	·

저서 연구성과 기초자료(총 42건)

4. 관련 연구성과 분석 및 시사점

가. 학술지 논문 연구성과 분석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후백제 관련 연구는 1913년 발행된 쓰다 소키치의 「後百濟疆域考」이다. 다음으로 1927년 나카무로 히데타카의 「後百濟及び高麗太祖朝の日本通聘」가 저술된 이후 1960년대까지는 그 연구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1960년대 정중환 교수의 「高麗建國考」를 시작으로 1960년대 2편, 1970년대 4편, 1980년대 6편, 1990년대 7편, 2000년대 29편, 2010년대 51편, 2020년대 22편(~23년까지)이 확인되고 있다.

논문이 발간된 학술단체와 학술지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고대사학회의 『한국고대사연구』가 10회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중세사학회의 『한국중세사연구』 및 전북사학회의 『전북사학』이 각각 8회, 백산학회의 『백산학보』, 충남대 백제연구소의 『백제연구』, 신라사학회의 『신라사학보』가 각각 5회 순으로 후백제 관련 연구성과를 내고 있었다.

논문이 발간된 지역을 살펴보면 전국단위 학술지가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14건, 서울 8건, 대전 6건, 경북 5건, 충남과 전남 각각 4건 순으로 확인되고 있다.

논문의 저자를 살펴보면 이도학과 진정환이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으며, 신성재, 신호철, 조법종이 각각 6건, 김갑동, 배재훈이 각각 4건, 김수태, 김주성, 송화섭, 허인욱이 각각 3건의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논문의 연구성과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후백제'가 가장 높은 비중인 76회가 확인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견훤 45회, 신검 9회, 궁예 8회, 왕건, 전주, 후삼국 각각 7회, 불교미술, 석탑 각각 6회, 석불 5회, 오월국, 동고산성, 봉림사지 각각 4회, 천안, 보협인석탑, 산경표, 백두대간, 진안 도통리가 각각 3회 확인되고 있다. 주제어를 통해 살펴본 대표적인 연구경향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후백제에 대한 연구가 대체적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견훤을 중심으로 한 인구가 두드러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후삼국시대를 중심으로 궁예나 왕건, 후삼국 등의 연구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후백제 관련 연구들이 후백제를 독자적으로 설정한 연구보다는 후삼국시대와 연계하여 진행된 결과들이 많다는 점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불교관련 주제어가 많이 보인다는 점 역시 후백제와 불교를 연계하여 연구한 성과

로 확인되며, 동고산성이나 봉림사지 등 유적을 중심으로 연구한 성과는 비교적 적게 확인되고 있다.

나. 학위논문 연구성과 분석

후백제를 연구주제로 발간된 학위논문은 석사학위논문 총 8건, 박사학위논문 총 4건이 확인되고 있다. 최초의 학위논문은 1982년 국옥지의 「後三國의 相互抗爭에 關한 硏究」 석사학위논문이며, 최초의 박사학위논문은 1988년 黃璿永의 『高麗初期 王權에 관한 硏究』가 확인되고 있다. 이후 80년대 4건(박사학위논문 3건, 석사학위논문 1건), 90년대 2건(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각각 1건), 2000년대 3건(석사학위논문 3건), 2010년대 2건(석사학위논문 2건), 2020년대 1건(석사학위논문 1건, ~23년)이 확인된다.

논문의 발행처를 살펴보면 서강대학교 2건을 제외하면 강원대, 경남대, 경북대, 단국대, 동국대, 동아대, 목포대, 영남대, 전남대, 전북대 등 다양한 학교에서 학위논문이 배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를 발간지역으로 좁혀보면 서울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2건 이외에 전북, 창원, 부산, 대구, 경북, 강원 등이 각각 1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논문의 주제어를 살펴보면 견훤과 후백제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후삼국과 석탑이 3건으로 그 다음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점은 오월, 중국, 외교, 무역 동맹 등 후백제의 대외관계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성과들이 보인다는 점이다.

후백제를 연구한 학위논문의 전반적인 연구경향성은 후삼국시대를 중심으로 후백제를 연구한 학술지와 비교하여 후백제와 견훤 등 후백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성과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습은 후백제의 성격 중 하나인 대외관계에 대한 연구성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90년대 후반 박사학위논문이 발행된 이후 박사학위논문보다는 석사학위논문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도 주목되는 점이다.

다. 저서 연구성과 분석

저서의 경우 연구범위가 크기 때문에 후백제를 중심주제로 연구한 성과와 후백제 관련 연구가 하나의 주제로 거론된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후백제를 중심적인

연구주제로 설정한 연구는 총 25건이 확인되고 있으며 후백제 관련 연구가 주제로 포함된 경우는 17건이 확인되고 있다.

가장 먼저 후백제를 연구한 저서로 확인되는 것은 1988년 발행된 黃善榮의 『高麗初期王權硏究』로 이후 90년대 5건, 2000년대 14건, 2010년대 17건, 2020년대 5건(~23년)이 확인되고 있다.

저서의 발행처를 살펴보면 전주시(전주역사박물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혜안 5건, 서경문화사 4건, 주류성 4건 등이 상위빈도수로 확인되고 있다. 발간지역은 서울이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북 10건, 경북 3건, 충남 2건 순으로 확인되고 있다.

저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도학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안식 4건, 김갑동, 신성재, 신호철이 각각 2건으로 상위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저서의 핵심 주제를 살펴보면 후백제가 9회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후삼국 5회, 견훤 4회, 문경·상주 2회 순의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후백제에 대한 연구성과 중 저서의 경우 학술지 및 학위논문과는 다르게 '후백제'라는 주제에 밀도있게 접근한 연구성과가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학술지 등에 게재된 연구성과들이 정리되어 출판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학술지와 마찬가지로 최근 연구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구의 주제역시 견훤의 중앙정권에서 나아가 최근 발굴되는 고고학자료, 문화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제4장

후백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 및 분석

1. 전북 후백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
2. 사회적 인식 조사 시사점

제4장 후백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 및 분석

1. 전북 후백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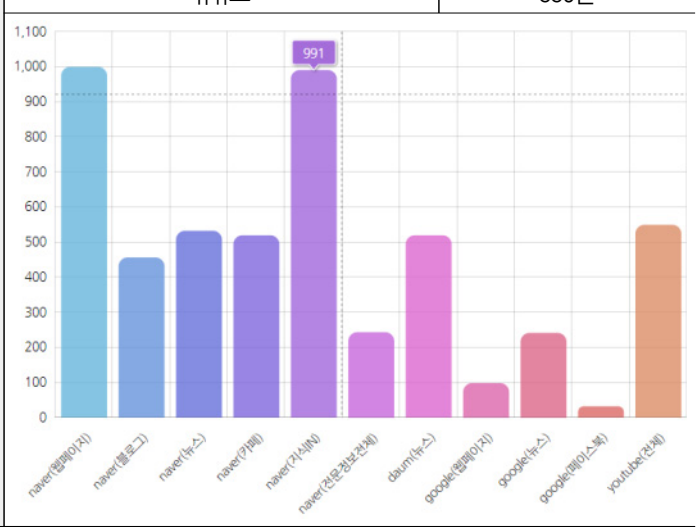
앞에서 검토한 역사문화자원의 개념을 통해 역사문화자원과 그 활용은 가치의 제고와 공감을 통해 문화산업과 같은 적극적인 활용의 대상으로 문화재를 인식한 개념이다. 특히 적극적인 활용에는 역사적 왜곡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역사문화자원 활용에 있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활용방법↔수요층의 개념을 중심으로 그 활용방법과 수요층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기존의 '문화재에 대한 활용'은 일방향적인 역사적 가치에 대한 전달이 대부분이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학계에서 도출되고 검증된 역사적인 가치가 수요층인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의 기본전제이자 활용의 대상이 되는 수요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가. TEXTOM을 활용한 후백제 키워드 분석

스토리텔링의 개념은 일방향적인 정보전달이 아닌 쌍방향적인 정보전달과 공감이 중요한 정보전달 체계이다. 이에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방향성이자 대상인 수요층의 사회적 인식 분석은 스토리텔링의 기본전제라고 할 수 있다. 수요층을 분석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이미 마케팅 등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내용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수요층을 분석하기 위하여 웹상의 키워드를 분석한 'TEXTOM'툴과 '빅카인즈'를 활용한 신문기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수요층에 대한 분석은 상대방의 공감을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에 있어 효과적인 전략마련의 기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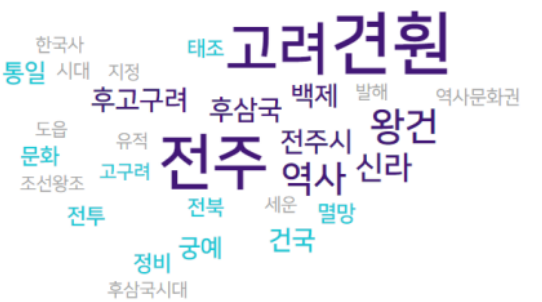
TEXTOM은 Web과 SNS 상의 다양한 채널과 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웹 기반 빅데이터 분석툴이다. 본 항에서는 이러한 빅데이터 툴을 통해 후백제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이를 통한 공감의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은 본 분석의 개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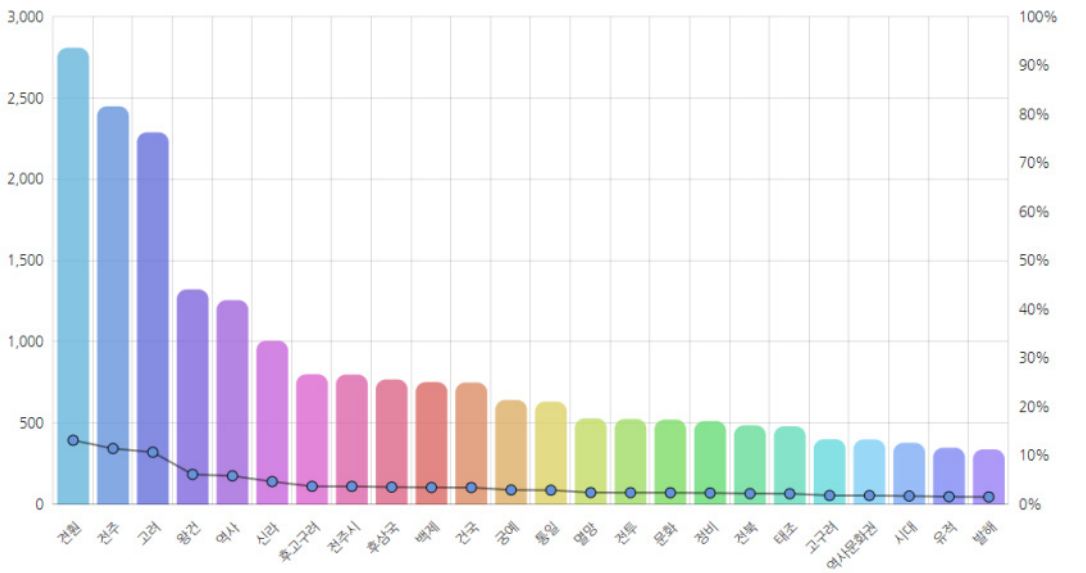
분 류	내 용		
키워드	후백제		
채널	네이버(블로그,카페,뉴스,웹문서,지식IN,학술정보전체) 다음(블로그,카페,뉴스,웹문서) 구글(웹문서,뉴스,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수집기간	2013.5.1.~2023.5.23.(약 10년간)		
수집정보량	총 5,189건		
채널별 수집정보량	네이버	웹문서	1,000건
		블로그	457건
		뉴스	533건
		카페	520건
		지식인	991건
		학술정보전체	244건
	다음	뉴스	520건
	구글	웹문서	99건
		뉴스	242건
		페이스북	33건
	유튜브		550건



○ 텍스트마이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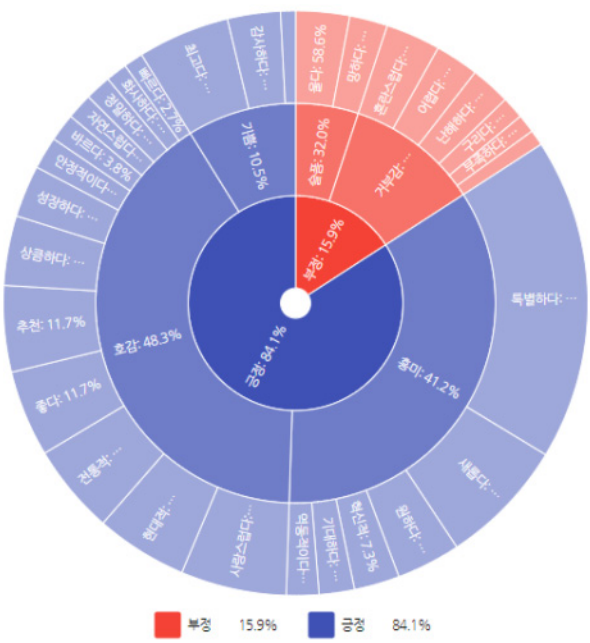
분석결과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는 키워드는 견훤으로 총 2,811건의 빈도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어서 전주 2,451건, 고려 2,291건, 왕건 1,325건이 확인되고 있다. 최근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설정과 함께 문화, 정비, 역사문화권 등의 단어가 상위 30위권 안에 확인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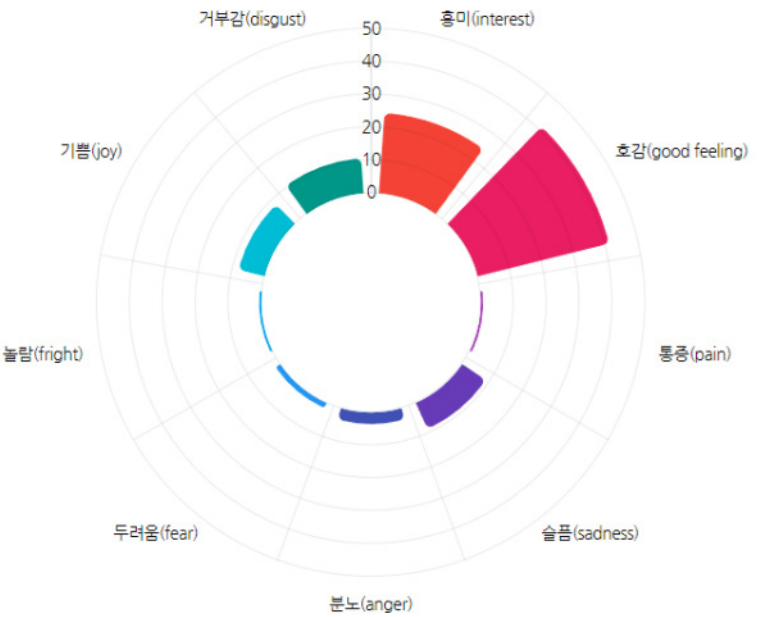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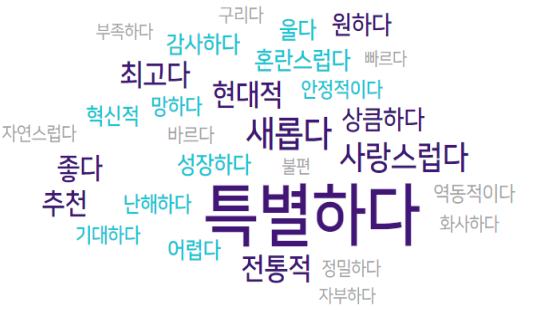


○ 감성분석 결과

분석결과 긍정 84.1%, 부정 15.9%의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긍정키워드에는 특별하다 11.7%, 새롭다 4.6%, 사랑스럽다 3.8%, 현대적 3.3%, 전통적 3.3% 등의 상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부정키워드에는 혼란스럽다 2.0%, 울다 1.9%, 어렵다 1.6%, 난해하다 1.5%, 망하다 1.4% 등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거부감(disgust)
흥미(interest)
50
40
30
20
10
0
기쁨(joy)
호감(good feeling)
놀람(fright)
통증(pain)
두려움(fear)
슬픔(sadness)
분노(anger)


구리다
부족하다
울다
원하다
감사하다
혼란스럽다
빠르다
최고다
현대적
안정적이다
혁신적
망하다
상큼하다
자연스럽다
바르다
새롭다
사랑스럽다
좋다
성장하다
불편
추천
난해하다
특별하다
역동적이다
화사하다
기대하다
어렵다
전통적
정밀하다
자부하다

나. 빅카인즈를 통해 본 후백제 키워드 분석

빅카인즈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 54개 언론사DB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기반 분석서비스이다. 언론사DB 분석의 경우 당시의 정책과 이슈, 시민들의 의견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백제에 대한 수요층 조사에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본 분석에서는 1990년부터 최근인 2023년까지의 언론사DB를 분석하여 후백제에 대한 수요층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분석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분 류	내 용
키워드	후백제
채널	전국 54개 언론사DB 전국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제일간지(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지역일간지(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방송사(KBS, MBC, OBS, SBS, YTN) 전문지(디지털타임즈, 전자신문)
수집기간	1990.1.1.~2023.5.27.
수집정보량	총 4,683건

○ 수집정보량 분석

분석결과 90년대 후백제 관련기사는 총 447건이며, 2000년대 1,413건, 2010년대 2,020건, 2020년대는 803건(~23년 5월까지)로 확인된다. 가장 기사수가 많았던 시기는 2016년으로 전주시의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사업의 착수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후백제 관련 키워드의 가중치 워드클라우드는 다음 이미지와 같다.

전체 후백제 관련 키워드의 가중치

가중치를 살펴보면 후백제 왕도로서 전주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견훤 관련 유적인 동고산성 등이 확인되고 있다. 후백제 역사문화권과 관련하여 정비, 특별법, 학술세미나나 학술대회 등의 키워드도 확인되고 있다.

○ 시기별 수집정보 분석

먼저 90년대 후백제 관련 기사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1991년 전주 동고산성의 발굴과 함께 '후백제 궁궐터'를 중심으로 후백제가 대중들에게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연계하여 후백제 관련 다양한 학술행사를 통해 90년대까지 주목받지 못한 후백제에 대한 연구성과들이 집적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90년대 후백제 관련 기사 가중치

다음으로 2000년대 후백제 관련 기사에서는 후백제 정도 110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었다. 특히 90년대부터 제시되어온 후백제 관련 유적들에 대한 발굴조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후백제 키워드에 고려 태조 왕건 연관어가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KBS에서 방영된 '태조 왕건' 드라마의 영향으로 대중들이 고려건국기의 후백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00년대 후백제 관련 기사 가중치

다음으로 2010년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후백제 관련 연계 사업을 추진한 시기이다. 이에 후백제의 왕성 및 도성에 대한 시발굴 조사가 본격화되었으며 다양한 학술적 활동도 함께 전개된 시기이다. 대중들의 인식에서는 2016년 방영된 '달의 연인-보보경심'의 드라마 속에서 후백제의 공주(소녀시대 서현)가 출연하면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 확인된다.

10년대 후백제 관련 기사 가중치

마지막으로 2020년대는 가장 수집기간이 짧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후백제 관련 기사가 작성된 시기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역사문화권정비법에 개정에 따른 키워드인 정

비, 관광자원, 재조명 등의 키워드가 보이고 있는 점이며, 최근 전북의 현안 중 하나인 전북특별자치도와 연계하여 특별법 등의 키워드가 보이는 점이다.

20년대 후백제 관련 기사 가중치

2. 사회적 인식 조사 시사점

가. 후백제에 대한 수요층 분석 시사점

앞선 4장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스토리텔링이란 일방향적인 정보의 전달을 지양하고 대중들의 공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보전달체계를 의미한다. 이에 앞선 장에서는 구체적인 스토리텔링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본 항에서는 분석된 수요층의 인식을 중심으로 향후 후백제 역사문화자원 활용에 요구되는 스토리텔링 모델의 근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수요층 분석을 통해 확인된 후백제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다.

먼저 TEXTOM을 활용한 키워드 분석 결과 대중들이 후백제에 대하여 깊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견훤과 전주가 가장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SNS를 중심으로 분석되는 TEXTOM의 특징 상 이러한 내용은 대중들의 인식 기저에 견훤과 전주가 후백제와 가장 강하게 연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드라마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후백제에 대하여 고려 태조 왕건이나 후삼국시대의 전개 속에서 후백제를 인식하고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언론사DB를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된 빅카인즈의 결과는 TEXTOM과 상이한 내

용을 보인다. 언론의 특성 상 대중들의 인식과 함께 정책이나 주요 사업 등이 그 주요 키워드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후백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후백제 역사문화'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지자체(전주)의 노력들이 확인되고 있다. 학술대회, 지자체의 정책사업 등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SNS 등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은 발굴성과나 연구성과, 특별법 등에 대한 내용들이 확인된다는 것이 언론사를 중심으로 한 기사 빅데이터 분석내용의 특징이다.

나. 후백제 스토리텔링 콘텐츠 방향성

이상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후백제를 대중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려의 건국 혹은 후삼국이라는 배경에서 '후백제'라고 하는 키워드를 대중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중들의 후백제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후백제에 대한 대중들의 감성인식이 주목된다. 최근 변화되는 여행 트렌드에 있어 '인지도가 낮다'는 것은 오히려 '특별하다'는 이미지로 치환될 수 있다. 대한민국 고대사에 있어 고구려, 백제, 신라 또는 통일신라와 같이 대중들에게 익숙한 콘텐츠에서 벗어나 '후백제'라고 하는 신선한 콘텐츠에 집중한다면 후백제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성으로 적합할 것이다.

다음 단계로는 후백제에 대한 '대중화 사업'과 이를 통한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전주를 비롯한 전북지역에서는 후백제 역사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다양한 학술적 활동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학술적 성과가 대중들에게 맞닿을 수 있는 대중화 사업 측면은 보완할 부분들이 확인된다. 특히 비교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백제나 신라문화관의 경우 축제 등의 다양한 대중화 사업을 통하여 학술적 성과와 대중들의 인지도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보다 친대중적인 사업 등을 통해 향후 후백제 콘텐츠가 가지는 대중들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5장

결론 및 활성화 방안 정책 제언

1. 결론 및 연구 쟁점
2. 전북 후백제 역사문화자원 활성화 방향성
3. 비전체계 및 전략별 과제
4. 향후 연구계획

제5장 결론 및 활성화 방안 정책 제언

4장까지 활용방안이 중심이 되는 역사문화자원의 개념과 정의,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 및 그 연구성과에 대한 분류 및 검토, 후백제에 대한 대중들의 사회적 인식을 중심으로 한 후백제 활성화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 5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후백제 관련 활용사례를 대중화 사업 및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여, 향후 후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진행하겠다.

1. 결론 및 연구 쟁점

가. 후백제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역사적 가치의 발굴과 재조명 필요

역사문화자원의 역사적인 가치는 그 활용에 있어 대중들에게 중점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내용이다. 하지만 학술적으로 검토된 역사적인 가치가 대중들의 가치와 합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기왕에 도출된 후백제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오늘날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적 가치로 재조명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의 학술적 검토와 함께 대중들의 요구에 걸맞는 역사문화자원의 가치가 필요할 것이다.

나. 연구성과 집성 및 후백제 관련 유적 검토를 통한 후백제 역사문화자원 경쟁력 발굴

역사학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통해 후백제 역사문화자원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발굴해야한다. 특히 과거 주목받지 못했던 후백제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대중들에게 공감요소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학계에서 진행되는 학술적인 성과와 더불어 최근 제시되고 잇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활용방법과의 긴밀한 연계가 요구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법을 통한 활용방안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후백제 역사문화자원의 경쟁력에 기반한 활용방안들이 모색된다면 후백제가 가지는 특수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 실질적인 후백제 역사문화자원 활용에 있어 수요층 분석의 실효성 제고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대상이 되는 수요층에 대한 분석은 단순한 빈도분석이 아닌 향후 활용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할 것이다. 과거 일방향적인 정보전달식 활용이 아닌 대중들이 공감하고 원하는 콘텐츠를 찾기 위한 수요층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과거의 역사에서 현재의 공감을 이끌어냈을 때 역사문화자원이 가지는 가치가 대중들에게 동기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수요층 분석을 토대로 한 활용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요층 분석을 중심으로 한 활용방안의 기저에는 반드시 역사문화자원의 역사적 가치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이는 역사적 왜곡을 막기 위한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북 후백제 역사문화자원 활성화 방향성

가. 역사문화자원 콘텐츠 재생산을 위한 인력확보

후백제역사문화권과 그 역사문화자원은 함께 역사문화권정비법에 정의내려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에 비하여 그 인지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부분은 관련된 연구성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 후백제를 주제로 학위논문을 진행한 인원은 6명에 불과하고 이 역시 석사학위논문에 국한되어 있다. 반면 2000년대 이후 신라를 주제로 한 석박사 학위논문은 약 7,673건, 백제의 경우에도 약 1,987건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연구인력의 부족은 양질의 연구성과 부족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역사문화자원 콘텐츠의 재생산에도 기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의 건립이 주목된다. 후백제역사문화권의 거점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할 후백제역사문화센터는 1차적으로 후백제관련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다. 또한 센터를 중심으로 후백제 관련 연구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후백제에 대한 기초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함으로서 향후 인력확보를 통해 후백제 활성화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그 형태는 한국연구재단 또는 동북아역사재단 등에서 신진연구자를 지원하는 형태가 효과적일 것이다.

나. 후백제 대중화 콘텐츠 강화를 통한 인지도 제고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후백제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견훤', '전주' 등의 1차적인 키워드 중심, '고려 태조', '후삼국'시대와 같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중심주제보다는 주변 소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후백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백제문화권(공주, 부여)의 백제문화제, 마한문화권의 마한문화제(나주), 마한축제(영암), 신라문화권의 신라문화제(경주) 등과 같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정체성을 주제로 하는 대형 축제의 기획이 시급하다.

대중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미디어 매체의 경우에도 '후백제'를 독자적으로 활용한 콘텐츠가 부재하다. 후백제를 메인 주제로 하는 다양한 창작물에 대한 지원 및 홍보를 통하여 '후삼국 속의 후백제', '고려 태조 왕건과 견훤'이라는 종속적 관계를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 타 역사문화권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확보

후백제역사문화권과 역사문화자원의 가장 큰 약점은 관련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후백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 및 공간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후백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특징인 '백제의 계승', '활발한 대외관계' 등과 연계·확장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후'백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전북지역(익산)이 가지고 있는 백제와의 연계 그리고 백제의 대외관계와 해상교류의 연장선 상에서 후백제-오월의 교류 등을 통한 콘텐츠의 확장이 필요하다. 특히 '공주-부여'로 연계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주목되지 않는 익산의 백제문화와 연계하여 '백제-후백제' 역사문화 벨트를 조성하고 그와 연계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三國史記』卷50, 「列傳」10 甄萱條의 '의자왕(義慈王)의 묵은 분함을 씻지 않겠는가?(以雪義慈宿憤乎)'는 후백제 건국당시 견훤의 국정과제이자 비전이었다. 서기 660년 백제 멸망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도약의 발판이 후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3. 비전체계 및 전략별 과제

가. 후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 비전체계

1) 비전

"후백제 활성화를 통한
중부권 역사문화권 중심지 도약"

2) 3대 목표

3대 목표	후백제 관련 연구 및 활성화 인력 양성
	후백제 역사문화권 대중 인지도 제고
	연계형 역사문화권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

3) 추진전략

-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속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인력유치 및 양성
- 하드웨어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인프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기획, 프로그램 등) 마련
- 학계의 연구성과가 대중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가시화산에 수렴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특별한' 전북의 역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초광역단위 역사문화권 연계 거점 구축

· 비전: 후백제 활성화를 통한 중부권 역사문화권 중심지 도약
· 목표
  : 후백제 관련 연구 및 활성화 인력 양성
  : 후백제 역사문화권 대중 인지도 제고
  : 연계형 역사문화권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
· 추진전략
  :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속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인력유치 및 양성
  : 하드웨어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인프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기획, 프로그램 등) 마련
  : 학계의 연구성과가 대중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가치확산에 주력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특별한' 전북의 역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초광역단위 역사문화권 연계 거점 구축

나. 정책과제

1) 목표 1 : 후백제 관련 연구 및 활성화 인력 양성

○ **정책과제 1 : 도내 후백제 관련 전문 연구기관 설립**

○ **정책과제 2 : 후백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2) 목표 2 : 후백제 역사문화권 대중 인지도 제고

○ **정책과제 3 : 후백제의 역사적 가치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 **정책과제 4 : 대중친화적 후백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

3) 목표 3 : 연계형 역사문화권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

○ **정책과제 5 : 백제문화권 - 후백제 문화권 연계 체계 구축**

○ **정책과제 6 : 마한문화권(나주 등) 및 대외문화권(중국-오월) 연계 체계 구축**

목표 1 : 후백제 관련 연구 및 활성화 인력 양성		
정책과제	세부과제	비고
1.1. 도내 후백제 관련 전문 연구기관 설립	1.1.1.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방향성 수립	
	1.1.2. 기존 후백제관련 연구기관의 통합 및 집중지원	
1.2. 후백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1.2.1.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1.2.2. 도내외 후백제 관련 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방안 마련	

목표 2 : 후백제 역사문화권 대중 인지도 제고		
정책과제	세부과제	비고
2.1. 후백제의 역사적 가치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2.1.1. '백제의 멸망과 부활' 프로젝트 추진(스토리텔링 모델, 백제의 부활 후백제)	
	2.1.2. 스토리텔링 모델에 기반한 창작프로그램 지원(웹툰, 웹드라마 등)	
2.2. 대중친화적 후백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	2.2.1. 후백제 대축전(가제) 축제 프로그램 개발	
	2.2.2. SNS, 미디어 콘텐츠 등 대중친화적 후백제 콘텐츠 개발	

목표 3 : 연계형 역사문화권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		
정책과제	세부과제	비고
3.1. 백제문화권 - 후백제 문화권 연계 체계 구축	3.1.1. 후백제-백제 연계프로그램, 기존 프로그램의 연계 등 연계방안 구축	
	3.1.2. '견훤-의자왕 추모제' 추진(상주-부여-논산 등과 연계)	
3.2. 마한문화권(나주 등) 및 대외문화권(중국-오월) 연계 체계 구축	3.2.1. 연계 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 구축('견훤의 길' : 상주-나주-전주-논산 '통합관광,답사, 체험 프로그램 등)	
	3.2.2. 후백제 역사 복원을 위한 학술교류 협력체계 구축(한-중)	

4. 향후 연구계획

가. 후백제 관련 연구성과 및 유적 현황 집성 고도화

목록화 작업과 함께 연구의 핵심 키워드, 주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후백제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피고 이를 기반한 활용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 후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집중되어야할 연구분야 및 문화재 지정 등을 위한 학술적 검토의 진행방향성 등을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발굴조사, 학술행사 등의 계획과 연계한 방향성 수립을 지향하겠다.

나. 전북지역 후백제 역사문화자원의 성격 규명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분류 및 분석작업을 통해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고 이를 후백제 역사문화자원의 경쟁력 제고의 기초자료로 이용한다. 특히 후발주자인 후백제 역사문화권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명확한 후백제의 성격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활용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수요층 분석 고도화 및 후백제 스토리텔링 모델 개발

현재 빈도분석 중심으로 전개된 수요층에 대한 분석을 고도화하여 시기별, 주제별, 담론별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하여 후백제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행과정을 중심으로 후백제 역사문화자원 성격에 맞는 스토리텔링 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모델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선행한 후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모델을 개발한다.

참 고 문 헌

REFERENCE

문화전략연구소. (2006).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연구. 문화재청.

朴素禾. (2012). 스토리텔링 基盤 敎授設計 原理 및 模型 探索.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진우. (2018), 문화유산 활용의 이론과 활성화 체계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Charles Landry(임상오 역). (1948). The creative city :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해남.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7).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스티브 데닝(안진환 역). (2005). 스토리텔링으로 성공하라. 을유문화사.

구종상. (2014). 우리 시대의 담론,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레시피. 푸른사상.

김영규. (2009). 한국과 일본의 문화재보호정책 비교연구. 한국지역혁신논집. 제4권(2호).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방전연구소.

이도학. (2001). 후백제의 가야고지 진출에 관한 검토. 백산학보. 제58권. 백산학회.

이희복 & 신명희. (2011). 광고의 스토리텔링 구성요소와 유형 연구. OOH광고학연구. 제8권(2호). 한국OOH광고학회.

장충희. (2012). 공주의 백제역사문화자원 현황과 활용방안.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충희. (2018.3).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 연구 ;공주 공산성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48권. 인문콘텐츠학회.

정재윤. (2009). 백제문화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활용성 제고. 충청학과 충청문화. 제9권.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정재윤. (2017).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와 활용 방안. 고구려발해연구. 제59권. 고구려발해학회.

최혜실. (2006).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삼성경제연구소.

최희수. (2016). 체험형 역사콘텐츠와 한국고대사. 韓國古代史硏究. 제84권. 韓國古代史學會.

SUMMARY

Study on Collecting Basic Data and Revitalizing on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Related to Later Baekje in Jeollabuk-do

Choong Hee, Jang · Seok Hyung Le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llect basic data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Later Baekje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under the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Maintenance Act, which has recently become an important agenda in Jeollabuk-do, and to explore ways to revitalize them.

The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Maintenance Act was introduced due to the need to ensure integrated and macro-level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assets and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by introducing the no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in the "myeon" (administrative area) unit to address the limits of cultural asset preservation using an individual-location unit level.

The December 2022 amendment established the Later Baekje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which includes Jeonbuk, and is the cornerstone for the future utiliz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in Jeonbuk. In order to revitalize the utilization of Later Baekj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utiliz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related to Later Baekje.

This revealed that "Later Baekje" is not recognized by the public as a distinct entity, but as a background for the "Later Three Kingdoms" or the "Founding of Goryeo." Similar trends were found in the analysis of research outcomes

and social perception survey and analysis.

In particular, the "lack of research personnel related to Later Baekje" identified from the analysis of research outcomes will be the first target to overcome in preparing a plan to revitalize Later Baekje.

The social perception survey and analysis also found no "Later Baekje-centered content."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plan to revitalize Later Baekje centered on the following vision and goals.

"Vision: Developing into the hub in the Central Region's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Later Baekje," and "Goals: Fostering research and revitalization personnel related to Later Baekje; raising public awareness of Later Baekje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securing competitiveness by building a linked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Key Words Later-Baekj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 Content, Popuarization or Later-baekje Content,

기본연구 2023-10

전북 후백제 관련 역사문화자원 기초자료 집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발 행 인 | 이 남 호
발 행 일 | 2023년 10월 31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502-9 9591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3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본연구

전라북도 선행경기종합지수 작성 연구
전라북도 경제와 거시경제의 동적 관계 분석 연구
전라북도 일자리 종합지수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전북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인구감소 대비 농촌마을 기본공간정보구축 기초연구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및 탄소중립 전략 설정
지역문화인력의 근로실태조사와 근로환경 개선방안
전북 해양 역사문화자원 기초자료 집성 및 활성화 방안연구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전북 청년정책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전라북도 재정운용 효율성 분석 연구

기획연구

전북형 물류서비스 산업화 방안 연구
국제정세 변화와 새만금 중장기 글로벌 전략에 관한 연구
만경강·동진강 생태·환경자산 목록화 및 가치창출 연구
전주 남부시장 구술사를 통해 본 전라북도 여성들

정책연구

전북연구개발특구 공간 확대방안 연구
전라북도 녹색복원 후보지 선정 및 사업화 방안 연구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지방시대에 대응한 전북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방안 연구
전라북도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원사업 개선방안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 방안 연구
글로벌 스마트 재난대응 연구개발 실증단지 추진 방안
전북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전라북도 문화재활용 문화융합상품 개발방안 연구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방안 연구
전라북도 탄소중립을 위한 식생활 개선방안 연구
전라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방안
소득보전 지원체계 지원방안 마련
「전북형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운용 방안 수립
전북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방향 연구
전북형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체계 연구
현업축사 매입부지 활용 주민소득창출 방안 연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jthink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95910
9 788966 125029
ISBN 978-89-6612-502-9 (PDF)